



#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박대신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20년 (불기 2563년) 9월 30일 (수)

<http://dongguk.or.kr>

제253호

가을이 깊었습니다.  
 코로나 19에 쫓기다보니 어느덧  
 이만큼 왔습니다.  
 우리 동문 사회는 변함없이 소통하고  
 결속하고 연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가을의 결실을  
 맺었다고 자부합니다.  
 조용히 산책길을 걸으며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암송해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내일을 기약합니다.  
 어떤 비관주의보다 낙관주의가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결속과 연대와 자기 긍정의 힘을 믿읍시다.

##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머언 젊음의 뒀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미당 서정주

(중앙불전35, 前 모교 교수·예술원 원로회원)

동국장학회  
참여 안내

동국장학회 신청서를 총동창회 사무처로 보내주시거나, 거래은행에서 장학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3-886719 (예금주 재단법인동국장학회), 문의 : 02-733-3991, 02-733-0303

# 서울 1,795명 · 경주 516명 학위 수여

## 코로나19로 졸업식 취소 ... 본회 회원 자동 가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서울 및 경주캠퍼스 학위 수여식이 봄학기에 이어 가을학기도 취소됐다. 이에 따라 졸업대상자들은 해당 대학 및 대학원 학사운영실을 방문해 학위증을 받았으며, 희망자에 한해 우편발송을 통해서 학위증을 수령했다. 학교 방문 수령자들은 각 학사운영실에서

학위별 까운을 대여받아 캠퍼스 명소 등에서 졸업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아쉬움을 대신했다.

이번 서울캠퍼스 2020년 가을학기 학위수여에서는 학사 1,169명, 석사 502명, 박사 124명이 새로 탄생했다. 박사학위는 일반대학원 116명, 영상대학원 8명이다. 대학원별 석사학위는 일반대학원 201명, 영상대학원 41명, 경영전문대학원 5명, 불교대학원 26명, 교육대학원 43명, 법부대학원 29명, 행정대학원 47명, 경찰사법대학원 24명, 문화예술대학원 48명, 언론정보대학원 18명, 국제정보보호대학원 20명 등이다.

경주캠퍼스는 학사 430명, 석사 80명, 박사 6명이 해당 학위를 받았다.

## 박대신 회장, 이사장 · 총장 예방



▲ 성우 이사장 스님 예방.

본회 박대신 회장은 김환배 상임부회장과 함께 9월23일 오전 학교법인 이사장 성우스님과 모교 윤성이 총장을 예방하고 환담했다. 이번 방문은 2학기 개강을 맞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대학 재정과 학사운영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법인·학교당국을 성원하기 위해서였다.

박 회장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모교가 겪고 있는 고충에 많은 동



▲ 윤성이 총장 예방.

문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주시길 바라며, 동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이 총장은 “학교는 법인, 교직원, 학생이 일심동체가 되어 다른 대학들의 모범으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변화되고 있는 대학 문화에 대해 설명했다.

## 초대 회장 만해 한용운 묘소 참배



초대 동창회장 만해 한용운 선배 탄신 141주년을 맞아 박대신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8월27일 오후 망우묘지공원내 묘역을 참배, 추모했다.

이날 박대신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선배님께서 창립한 우리 동국대학교총동창회가 102주년을 맞았으며, 35만 동문들은 각계각층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면서 “우리 후배들은 선배님께서 보여주신 3.1독립운동 주도와 국권 회복, 민족시

인, 불교유신, 자유 생명 평등 평화사상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새기고 유훈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배는 준비해간 향과 떡, 과일 등의 제물을 올리고 박 회장을 비롯 신관호 회장 특보, 임선기 사무총장, 이상호 부장 등 방문자 일동이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고 묘역 주변 비석, 안내표지석, 어록비와 경관 등을 살폈다.

# 동창회보 및 총회 회의자료 제본

## 역사 보존 차원서 중요 기록물로 영구 보관



본회는 그동안 발행된 동창회보와 총회 및 이사회 회의자료들을 9월 중순에 모두 제본, 사무처에 비치했다. 이번 제본은 총동창회 역사 보존 차원에서

중요 기록물들의 분실 방지를 위해 이루어졌다. 동창회보는 1976년 5월8일 창간호부터 올해 6월30일 발행된 제253

호까지 총 4책으로 제본되었다. 판형은 다블로이드판으로 1호부터 191호까지는 ‘東友會報’를 제호로, 194호(2003.8.1.)부터 253호까지는 ‘동국대동창회보’ 제호로 발행되었다. 판형이 다른 1999년~2002년 발행 ‘동우회 소식’ (1호~11호)과 2007~2009년 발행 ‘The Dongguk Alumni News’ (209호~215호)는 별도 제본했다.

정기총회 및 이사회 자료는 1993년부터 2020년 총회 자료까지 총 4책으로 제본했다.

# 사업재정위, 수익사업 프로모션 나서다

## 송석환 고문 차가버섯 100세트 즉석 구매



송석환 고문

총동창회 사업재정위원회는 원로 고문을 비롯한 기업경영 동문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수익사업의 프로모션에 나섰다.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김환배 사업재정위원장, 송일석 사업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첫번째로 8월31일 송석환(농경64, 동진기업 회장) 고문을 방문하고 수익사업의 배경과 추진 현황,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석환 고문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동창회 임원들이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직접 뛰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사업내용이 동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기대가 된다”면서 바이칼 차가버섯 100세트(1천5백40만원)를 즉석 구매했다. 또한 상조서비스 ‘담은라이프’의 가격경쟁력과 신용도에도 만족감을 표시하며 동진기업 임직원 1천여명이 모두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회사 복리향상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동창회 발전을 위해 무한한 애정을 표실했다.

송석환 고문의 차가버섯 구매는 사업

재정위원회의 첫 방문처, 첫 성과로서 앞으로의 활동에 동기 부여와 고무적인 신호가 되었다.

이어 9월8일에는 동국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순표(농학53, 세스코 회장) 고문을 찾아 장학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익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상세 보고했다. 전순표 고문은 “현재 장학기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동국장학위원 제도 활성화와 함께 수익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한우삼(농학63, 태양금속공업 회장) 고문은 9월10일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김환배 사업재정위원장이 방문했다. 한우삼 고문은 총동창회의 활동들을 듣고 “힘 달는데까지 협조하겠다”면서 “차가버섯 구매는 추후 주문하겠으며, 담은라이프 상조서비스는 회사내 2천여 임직원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본회 상임부회장 법타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하안거를 마치고 9월8일 총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해 차가버섯 10세트를 직접 구매하며 “많은 동문들이 내 살림처럼 관심을 갖고 서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대구경북지부 ‘잇다르타’ 단체 관람



대구경북지부(회장 손기범)는 7월31일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잇다르타’ 대구 공연차 대구경북동창회를 방문한 김면수(행정79) 총감독 환영회를 열고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대한민국 대표 불교 뮤지컬 잇다르타를 김면

수 동문이 제작, 감독했다는 데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면서 “우리 동문들에게 특별혜택도 있는 만큼 문화의 식도 높이고 동국인의 단합과 자부심을 빛내는 기회로 삼자”며 많은 관람을 요청했다.

뮤지컬 잇다르타는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8월21~23일 3일간 총 5회 공연을 가졌으며, 대구동문들은 가족과 함께 연 50여명이 2회로 나누어 단체관람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동창회 활성화 역량 강화 방안 논의

## 28대 5차 상임위원회 '동국가족 행복나눔사업' 승인 등 안건 의결

코로나 이후 총동창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총동창회 활성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의제로 제기됐다.

본회(회장 박대신)는 8월20일 오후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제28대 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동창회가 새로운 문명의 변화에 대응할 환경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박대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팬더믹 때문에 동창회 활동에도 영향이 적지 않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 동창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며 사명감과 봉사의 자세로 재무장하자”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코로나 이후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언택트(비대면) 소통이 점증하고 있고, 대부분의 생활공간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면서 “총동창회 활동도 현재와 같은 오프라인 위주의 운영 방식을 탈피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을 통한 초연결사회에서 영역과 경계없이 만나고 그 안에서 더 넓은 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해법을 찾는 대안이 시급히 요구된다”면서 총동창회 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 코로나19로 상임위원회가 지난 8월20일 3개월만에 열렸다.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른 조직 구성과 활동 내용 및 방향 등은 총동창회장에게 일임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동국가족 행복나눔 사업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심의, 의결됐다.

임선기 본회 사무총장은 안건 설명에서 “행복나눔 사업은 동문들에게 생활 밀착형 복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 수익사업을 다양화하여 조직운영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사업재정위원회(위원장 김환배)가 개발해온 제품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추진방향은 “동문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최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수익의 일정기금을 기부 받아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익사업은 △e-제너두 복지쇼핑몰 △상록웰스 동국가족복지몰 △담은 라이프의 장례서비스 위탁 판매 △차가버섯 위탁 판매 △무형문화재 김종욱 고려불화 위탁판매 △스타스테크의 친환경 제설제 위탁판매 △삼명테크의 에코전기온돌시스템 위탁판매 등 7종으로 이미 계약, 또는 MOU를 체결한 상태다.

안건심의에서 위원들은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우선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온라인 홍보 등을 위해 그 분야에 능력이 있는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바란다”고 건의했다.

사업재정위원장 김환배 상임부회장은 행복나눔사업의 향후 전망과 전략 등을 설명하며 “포스트 코로나의 동창회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효자 사업으로 키워나가자”고 강조했다.

문화예술위원장 차연신 상임부회장은 “코로나 등으로 각종 행사가 어려워진 만큼 문화예술위원회 활동을 소통홍보위원회로 조정해 행복나눔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본회가 후배들을 위해 지속적 장학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국장학위원’ 참여자 인원 확대에 상임위원들이 추진위원이 되어 자발적 홍보로 참여율을 제고하기로 동의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에게는 1인당 신청서 20명분을 배포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되었으며, 위원 29명중 18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들은 사무실 입구에서 열체크기와 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조치를 받은 뒤 입장했다.

## 후배 장학기금 조성에 코로나는 없다

### 동국장학위원 참여 “몸은 멀어도 마음은 모교로”

총동창회가 재학생 후배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자”며 지난 2월 시작한 ‘동국장학위원’ 참여 캠페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최근들어 ‘주춤’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기의 열기가 탄력을 잃고 가입자 누적 인원이 100명에도 미달해 자구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총동창회는 ‘몸은 멀어도 마음은 모교로’라는 자세로 장학사업 공감대와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 중에 있다. 1차로 아직도 장학위원 제도 취지와 참여방법을 모르는 동문들을 위해 총동창회장 명의의 서신과 참여신청서 양식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동문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호소하는 우편물을 9월30일자 발행되는 총동창회보 253호 발송시 동봉하여 보낼 예정이다.

총동창회는 우편물 발송후 유력동문 등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지부·지회 조직을 통해 십시일반 장학위원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동국장학위원 참여는 신청서를 작성해 매월 일정금액을 자동이체하면 되며, 일시불로 납부해도 된다. 현재까지 자동이체는 30만원 1명, 10만원 12명이며, 5만원, 3만원, 1만원 등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73명이 동참했다. 일시불은 공영대(화

학78)동문과 황수경(대학원00)동문이 각 1백만원, 윤미정(수교81) 동문은 60만원을 출연했다.

### 임금동 부회장 2월부터 소급

본회 상임부회장 임금동(경영81, 한세상사 대표)동문이 후배 장학기금 조성사업인 ‘동국장학위원’으로 월 10만원씩 자동이체하기로 하고 참여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부회장은 9월17일 박대신 총동창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모금활동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8월분까지는 소급해서 일시불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 동국장학위원 신청자

- △ 김진익 (73경영) 월 5만원
- △ 이상진 (00대학원) 월 5만원
- △ 김종규 (58경제) 월 3만원
- △ 이경석 (67도시공학) 월 3만원
- △ 한상길 (78미술) 월 3만원
- △ 이상근 (82사과대) 월 3만원
- △ 김경진 (86경영) 월 3만원
- △ 오수환 (84경제) 월 1만원
- △ 이창선 (14대학원) 월 1만원

## 불교문화대학원 임시총회 개최



회장 고담스님

서는 이재동(97학번, 태극 회장) 수석부회장, 대각스님(14학번, 부산 옥전암 주지) 상임부회장을 비롯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등의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모임의 활성화를 기원했다.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회장 고담스님, 불교상담학09)는 8월20일 부산 해암취폐에서 ‘2020년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동(97학번, 태극 회장) 수석부회장, 대각스님(14학번, 부산 옥전암 주지) 상임부회장을 비롯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등의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모임의 활성화를 기원했다.

고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나간 날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회장단과 임원이 공심과 신심, 원력으로 항상 탁마하며 바른길을 모색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모든 동문과 학교와 재학생이 생동감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경과보고, 회계보고에 이어 前 회의록 승인의 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임원 임면 및 임명장 수여의 건, 회칙 개정 승인의 건 등을 논의, 의결했다.

## 불교문화대학원 동림동문회장 도명스님



회장 도명스님

“불교문화대학원 동문스님들의 화합이 최우선입니다. 정례모임을 비롯해 만남의 장을 확대하여 스님들의 상호 교류에 앞장서며 학교 발전에 기여하

는 승가모임이 되겠습니다.” 동림동문회 제8대 회장에 도명스님(15학번)이 8월12일 취임했다. 도명스님은 재학 시절 16대 불교문화대학원 총학생회장, 17대 동림회장을 겸임했다. 현재 제주 약천사 부산포교원인 부산 천마사 주지를 맡고 있다.

본인 또는 주변동문 동정 등 각종 소식을 알려주세요

E-mail : dongguka@naver.com

문화유산국민신탁



우리의 찬란한 문화와  
조상의 얼이 서린 소중한 문화유산

#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지켜나갑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찾아  
이를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참여방식으로 영구히 보존·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다음세대에 물려주는 문화운동입니다.



## 문화유산국민신탁이 하는 일

- **매입관리** 민간의 기부·증여·성금모음 등을 통한 문화유산 매입·관리
- **위탁관리** 소유자·관리자와 계약(지정)을 통한 문화유산 위탁·관리
- **조사연구** 보존대상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
- **보전협약** 소유자·관리자와 협약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지원
- **교육홍보** 국민신탁운동의 확산발전을 위한 교육·연구·홍보사업
- **협력사업** 국민신탁운동의 확산발전을 협력·네트워크 추진

##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하기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존해 다음세대에 물려주는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기증하거나 맡기셔도 되고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문의 02-732-7521, 7508**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법정기부금 단체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집



대전 소대현 호연재 고택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보성여관



부산 문화공감 수정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



윤경렬 옛집



인천 조흥상회



중명전(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국)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환수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국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41-11 덕수궁 중명전 <http://ntch.kr>

## 인터넷 쇼핑몰 ‘상록웰스’와 업무협약

동문 판매금액 2%를 장학기금으로



▲ 본회 박대신 회장과 허 복(오른쪽 세번째) 상록웰스 대표이사 업무협약을 맺었다.

본회는 동문들의 쇼핑몰 이용에 우수한 제품과 가격경쟁력을 서비스하기 위해 상록웰스 복지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허 복 상록웰스 대표이사간에 9월2일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본회에서는 김환배 사업재정위원장과 송일석 사업재정부위원장, 상록웰스 문경태 홍보팀장과 김성택 온라인본부장이 각각 배석했다. 상록웰스는 공무원연금공단과 계약을 맺고 전·현직공무원 170만명을 대상으

로 10만 가지의 상품을 각종 인터넷 최저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가입은 본인의 이름과 입학년도를 입력후 회원확인을 거쳐 진행해야 하며, 상록웰스는 동문대상 판매금액의 2%를 장학기금으로 총동창회에 기부하게 된다. 한편, 상록웰스는 ‘동국가족복지몰’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 운영한다. 이에 따라 동국가족복지몰에는 상록웰스 전 상품을 비롯 한국인삼내츄럴 추천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된다.

## ‘담은라이프’ 상조서비스 협약체결

후불제로 24시간 콜센터 운영



▲ 박대신 회장과 이윤창 담은라이프 대표이사(오른쪽)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회(회장 박대신)는 상조서비스 업체 ‘담은라이프’ (대표이사 이윤창)와 7월17일 오전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동문들에게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후불제 운영이 특징이다. 서비스의 내용은 ‘동국대총동창회 전용 상조서비스’를 따로 운영하며 인력서비스, 고인용품서비스, 입관용품, 상복의 전용품, 의전차량, 기타 소모품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이용가격은 ‘동국490 상품’은 490만 원을 330만원에, ‘동국360 상품’은 360만 원을 270만원으로 각각 할인된 가격을 제공한다. 이날 체결식에는 본회 박대신 회장, 김환배 사업재정위원장, 송일석 사업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임선기 사무총장 등 사무처 직원과 담은라이프(주) 이윤창 대표이사, 정연광 장례서비스본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 ❖ 수익사업 협력업체 현장을 가다 - (주)한국인삼내츄럴

## 인삼 열매 ‘진생 베리’를 아시나요?

최상의 홍삼 제품 ‘상록웰스 동국복지몰’에서 만나다

총동창회 사업재정위원회(위원장 김환배)는 9월4일 홍삼 등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주)한국인삼 내츄럴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최상의 품질을 동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위치한 한국인삼은 1만5천평 부지에 첨단 자동화시스템 설비를 구축한 생산시설과 자체 부설연구소를 갖추어 지난 2016년 제조업을 등록한 강소기업이다. 회사는 GMP(우수건강식품), HACCP(식품안전인증), 유기농인증을 획득했으며, 홍삼업계 최초로 할랄(HALAL) 인증을 취득했다.

회사가 짧은 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독자적으로 개발해 독점하고 있는 ‘진생 베리’ 제품이 효자역할을 하고 있었다. 인삼의 열매인 진생 베리(Gingseng Berry)는 인삼을 제배한 지 4년만에 딱 한번만 열리는 붉은 열매로 인삼에 있는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30%가량 함유되어 있다. 인삼뿌리에 비해 사포닌이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성분이 높다. 이 진생베리를 추출,농축하여 ‘6년근 홍삼정 골드 프리미엄’과 ‘홍삼판타스틱 로얄’ 등 거의 모든 자사제품에 진생베리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차별화 제품으로는 경옥고에 홍삼을 첨가한 ‘발효 홍삼 정옥고 스틱’을 꼽는다.



▲ 동국대 동문에게 특가로 제공되는 한국인삼내츄럴 홍삼제품 3종.

이 제품은 우리 나라 3대 보약중 하나인 경옥고에 발효홍삼을 넣어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든 제품이다. 또한 (주)한국인삼내츄럴은 홍삼+갈슘의 멀티기능성으로 홍삼 고유의 5대 기능성과 갈슘의 기능성을 확보한 국내 유일의 복합기능성 제품은 국내 유일한 자사 보유자산으로 동일 스펙에서 경쟁업체는 없다고 한다. 이 회사 황진산 회장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좋은 홍삼제품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묻자 “제조방식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잘라 말한다. 이는 “한국인삼은 첨단 생산시설과 신공법, 신제품에 대한 탁월한 연구 개발로 업

계 경쟁력이 있다”는 답변으로 들었다. 한국홍삼은 자사브랜드로 3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장 가동은 OEM(주문자생산) 80%, ODM(자사제품 생산) 및 수출이 각각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을 20~30%로 확대한다는 목표아래 이미 중국, 베트남 수출을 시작했으며, 동남아를 비롯한 미주, 터키, 유럽까지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수출 마케팅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홍삼은 6년근 수삼을 엄선하여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증기로 찌서 건조시켜 붉은 빛을 내며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응집 억제, 기

역력 개선, 항산화와 여성 갱년기 장애, 항암 작용 등에 폭넓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은 건홍삼, 홍삼정, 발효홍삼, 어린이홍삼, 홍삼스틱, 홍삼젤리 등 다양한 종류들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발표에 따르면 20-30대의 건강식품 섭취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부모님 세대를 뛰어넘어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100세 건강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이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홍삼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수요와 해외 수출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을 보며 홍삼 시장이 크게 성장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총동창회는 한국홍삼과 MOU를 맺고 복지쇼핑몰인 ‘상록웰스’를 통해 동문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1차적으로 취급할 제품은 ‘6년근 홍삼정 골드 프리미엄’ ‘발효홍삼 정옥고 스틱’ ‘홍삼 판타스틱 로얄’ 등이다. 한편 한국홍삼 황진산 회장은 “동국대 총동창회 장학기금 조성 등에 상호간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인연에 감사드린다”며 “‘인삼은 국보다’라는 기업 이념아래 작게는 국민건강 증진, 크게는 세계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을 맺었다. <취재 : 신관호 동창회보 편집주간>

故 박영석 산악대장과 약속한 ‘마라톤 8,848km’ 완주한 이영균 동문

# “지성과 야성의 동국정신으로 오늘도 달린다”

동국산악회 출신이자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14좌를 등정해 기네스북에 오른故 박영석 동문과 약속했던 8848km를 마라톤으로 완주한 이영균 前 박영석탐험문화재단 이사장(수자원공학과 68학번). 그는 무엇보다 박영석 동문과의 약속을 지켰다는데 보람이 크다고 했다. 지난 7월 서울 도림천에서 열린 공원사랑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210회째를 완주하며 에베레스트의 높이 8,848m의 1,000배인 8,848km를 달렸다. 그 이후로도 매일 뛰고 있다.

“박영석 동문과 2006년 히말라야를 등반(그는 베이 스캠프까지 동행)하면서 약속을 했지요. 박 동문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마라톤을 통해 에베레스트 높이의 1,000배인 8,848km를 완주하겠다고요. 그것을 지난 7월에 달성한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박영석 대장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신을 높이 사서 나 역시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끝까지 하겠다는 각오로 임한 것이 오늘의 기록을 낳은 것 같습니다.”

이영균 동문이 공식 대회에서 달린 거리가 8,860.95km였으니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1,000배인 8,848km를 이미 넘겼다.

## 뒤 늦게나마 약속지켜 가슴 뿌듯하다

“박 대장이 하늘에서 축하해주었을 거예요. 우리 동국산악회의 일원으로서 남달리 애교심과 산악반을 사랑했던 박동문이 우리 동국산악회 활동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늘 약속을 지키는 산악반으로 이끌던 후배였습니다.”

동국산악회는 전국 대학 중 가장 전통있는 강팀으로 유명하다. 이 동문은故 박영석 대장(체육교육 83학번)보다 15년 선배로서 함께 학교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동국산악회 출신이란 점 때문에 뜨겁게 결속하고, OB팀으로서 함께 활동해왔다. 그만큼 동국산악회는 재학생과 OB팀이 하나가 되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 동문이 동국산악회장을 맡으면서부터 이같은 결속과 단합은 강고했다. 국내 등반은 물론 해외 등정에도 재학생과 OB팀이 하나가 되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니 타 대학의 귀감이 되고 있다.

## “업어 주겠다”던 박영석 후배 유명 달리해

2006년 초, 히말라야 14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 대장은 중국에서 네팔로 넘어가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횡단 등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국산악회 회장인 이영균 동문은 박영석 대장의 후원자로서 어떻게 좋은 응원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즐겨 뛰는 마라톤에 착안해, ‘박영석 인터넷 응원창’에 “박영석 동문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고 있으니 나는 평소 달리던 마라톤을 통해 8,848km를 달리며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그러자 금방 답신이 왔다.

“형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날 제가 업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못한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5년 후(2011년 10월) 박영석 대장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신 루트 개척에 나섰다. 눈사태로 히말라야에 묻히고 만 것이다. 그래서 업어주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 동문은 박영석 동문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목표를 달성한 나를 업어주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이영균 동문은 “그동안 나이도 있어서 에베레스트 정상을 함께 갈 수는 없고, 대신 늘 베이

스캠프까지 따라가서 응원했다”고 했다.

이영균 동문이 마라톤을 뛴 것은 2003년 말 춘천 마라톤대회에서 후배를 따라 마라톤 풀코스에 입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산을 같이 다니던 후배가 “형님 저 풀코스 완주했습니다. 형님도 나서 보시죠, 하기에 마라톤에 빠지게 됐다”고 소개했다.

“평소 산을 올랐기 때문에 도전정신이 있었다. 풀코스 완주를 하고 나니 자신감이 붙었다. 체력에도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계기로 이 동문은 지난해 춘천마라톤을 17년 연속 뛰고, 동아마라톤을 16년 연속 완주했다.

## 산은 ‘수직’ 마라톤 ‘수평’ ... 성취감 비슷

코로나 19로 각종 마라톤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요즘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열리는 공원사랑마라톤에서 뛰고 있다.

산과 마라톤, 이루는 과정은 다르지만 성취감을 준다는 점에선 비슷하다.

“솔직히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30km에 이르면 거의 죽을 맛이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완주 테이프를 끊을 때면 대번에 다음에는 어떤 마라톤대회에 나가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라톤의 매력이 그렇습니다. 박영석 동문도 높은 산을 오르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라톤과 등산은 이런 일치감이 있습니다. 산은 수직으로 오르고, 마라톤은 수평으로 달린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산 정상에 올랐을 때와 마라톤 결승선에서 결승 테이프를 끊을 때 느끼는 환희는 똑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요즘은 평일 7~12km를 달리고 있다”는 그는 “처음 마라톤을 시작할 땐 풀코스를 3시간 30분대에 완주했지만, 지금은 4시간30분~5시간 사이에 완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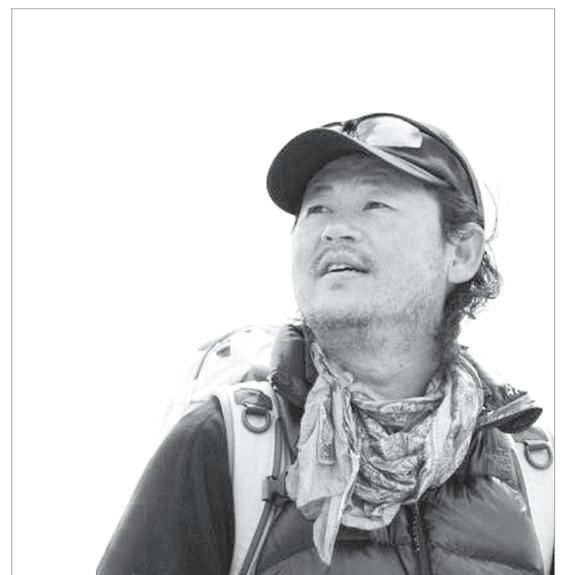
## “정신건강·육체건강 위해 계속 뛰겠다”

“나이를 먹으니 시간이 더디지만 뛰는 희열은 똑같습니다. 이제는 관심이 붙어서 매일 뛰지 않으면 몸이 나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채찍질합니다. 동문 여러분, 한번 뛰어보세요. 그리고 습관을 들여보세요.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이 가득합니다.”

7순을 넘어서도 뛰는 이영균 동문. 그런 그에게서 지성과 야성이 응축된 동국정신이 터져나오는 것 같다. 그는 현재 우향기획사를 경영하며 경영 일선에서도 왕성하게 뛰고 있다.

한편 이 동문은 박영석 대장의 정신을 기리는 박영석 탐험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박 동문의 아내 홍경희씨에게 물려주었다. 박영석탐험문화재단은 서울시가 제공한 서울 마포구 성산동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 부지에 우람하게 꾸며져 있다.

〈이계홍 홍보위원장, 국문학과 65학번〉



▲ 생전의故 박영석 동문.

##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이상근 동문

## “문화유산회복재단을 UN NGO기구로 등록하겠다”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경제학과 82학번)은 “경제학과 출신이 생뚱맞게 국외 강제 유출되거나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작업에 평생 사업으로 임하게 된 것은 모교 총장 황수영 박사와의 작은 인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대학 재학시절 총학생회 기획부장으로 활약하면서 학생 시위를 주도했다. 그의 재학시절은 전두환 군부정권 타도와 민주화 쟁취를 위한 학생 시위가 격렬했다.

국문학과 재학 중이던 대전고 1년 선배인 이용범 동문의 안내로 입학하자마자부터 그는 시위의 중심에 섰다.

## 황수영 총장 한 마디 뒤늦게 깨달아

“어느 날 총장실을 접거했습니다. 이때 황수영 총장님이 접거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면서 전공인 불교문화재에 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는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 때 문화재 환수 정부 대표로 참가하셨는데, 이때 우리 문화재가 많이 일본에 있고, 미국, 프랑스, 등에도 약탈해가거나 반출해간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문화재의 80% 이상이 불교문화재니 불자로서 반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운명적으로 우리 문화재 환수작업에 나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사장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들은 필자는 필자 역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속으로 공감했다. 중학교 시절 국어 교사가 서정주 교수의 ‘국화 옆에서’를 멋들어지게 낭송한 모습을 보고, 그 인연으로 평생 문필생활을 하는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에 진학했기 때문이다. 인연법이란 이런 우주의 운행과 같은 숙명성이 있는 것 같다.

이 이사장은 2017년 12월 문화유산회복재단을 국회 등록법인으로 설립하고, 국외 소재 문화재 출처 조사와 환수작업, 정책 제안, 문화유산 보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국보급인 1907년 충남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수와 대마도에서 반입된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환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 국외 반출 문화재 아직도 강대국에 수두룩

“우리의 국외반출 문화재가 일본에 8만점(42%), 미국에 3만 4천점(20%), 독일에 1만 2천점(13%), 그리고 영국, 러시아 등 21개국에 19만여 점이 있습니다. 조사할 때마다 증가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은 문화재의 소재가 밝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반출된 것은 제국주의 약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약탈 문화재는 돌려주는 것이 정상인데 이런 이유 저런 구실로 반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반환 환수위한 예산 시급하다

그는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것도 반환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문화재 반환은 인식과 의지가 중요한데 외교 순위가 안보, 통상, 무역 위주로 가니 성과를 못낸다는 것. 여기에 환수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백제보살반가사유상 등은 일본인 이치다와 오구라가 반출한 케이스. 이 문화재는 백제문명의 근원을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유산으로 반드시

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국주의 약탈은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외반출 문화재 관련 국제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민지를 겪은 동남아를 비롯해 중남미, 아프리카, 페르시아, 이탈리아 역사 유물들이 많이 다른 나라로 불법 반출되었거든요. 호주 대표는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한국의 사례를 들면서 문화재 반환은 민관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더군요, 이에 국제사회의 주요 아젠다가 되고 있는 문화재환수 국제기구를 창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조국가인 대한민국이 공공외교의 한 영역으로 저개발국의 문화재환수운동을 돕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입니다.”

## 피 약탈 국가들과 연대 활동 공감대 형성

이를 위해 문화유산회복재단을 유엔에 NGO 기구로 등록할 계획이다. 그리고 문화재를 빼앗긴 나라들과 연대해 환수작업을 펼 생각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6월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구성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이 활동에 35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포럼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과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철야작업을 하기도 한다.

그가 이처럼 우리 문화재 환수에 사명감을 갖고 나선 것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으로 십여 년간 근무한 경력도 작용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시절,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비롯한 남북 불교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수십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학생 시위를 벌일 때 황수영 총장님의 조언이 조계종 중앙신도회로까지 연결이 된 셈”이라는 그는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와도 친선 교류와 함께 불교 연대를 모색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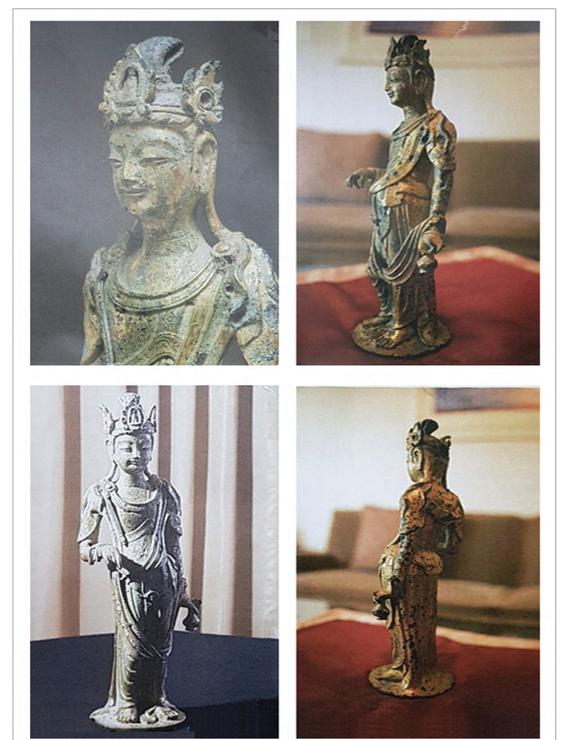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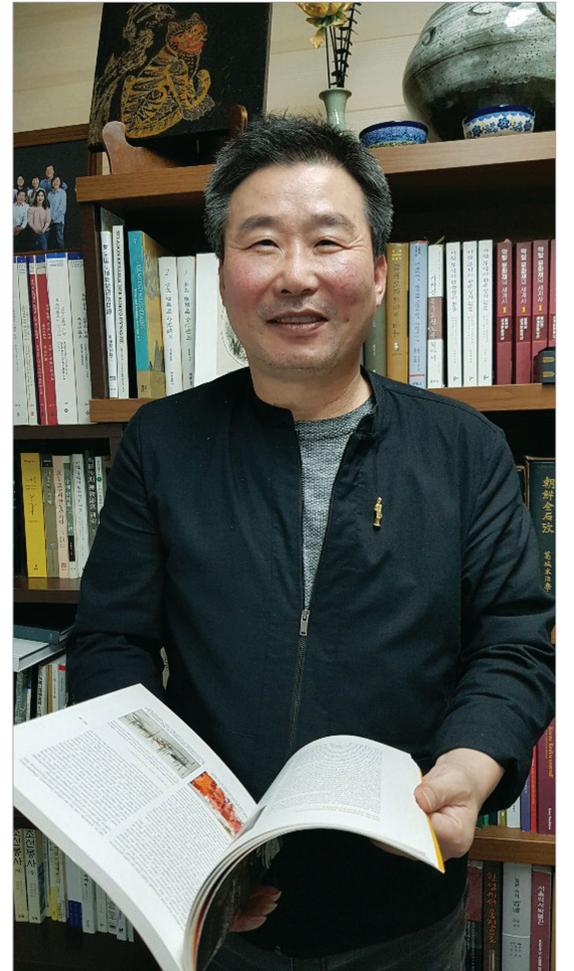
그러면서 재학시절 경찰과의 투석전을 벌일 때 캠퍼스의 보도블록을 엄청 깨 그에 대한 보상으로 모교 발전 기금에 기부금을 냈다며 웃었다. 이날도 취재에 수행한 신관호 총동창회 회장특보에게 장학기금 기탁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 2025년까지 회원 3만명 목표 달성

“문화유산회복재단은 회비로 운영됩니다. 3만명 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200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인식이 확대되고, 국외반출 문화재가 반환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는 그동안 북한과 불교 및 불교문화재 교류 행사를 가져왔다. 이 분야는 정치적 요소가 개입할 소지가 없기 때문에 한민족의 전통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활동이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계홍 홍보위원장, 국문학과 65학번〉



▲ 일본에 반출된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 - 백제의 미소, 백년만의 귀향을 꿈꾸다

www.외동석재.nasoft.kr



# 세계명석 경주 남산석 불교조각의 명가



경상북도 석공예부문 최고장인, 사대 22기 한동식



경북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610-4 대표전화.(054)777-0404,776-9500~3 FAX.(054)776-9504  
웹하드 ID.wdston PW.7770404 무료전화.080-855-9500 E-mail. od0404@daum.net



일산



경주



분당



-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겸의료원장 조성민
- 동국대학교 의료원 기획처장 권범선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장 이해원
-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장 김동일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 나득영
- 동국대학교 경주한의원장 황민섭
-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장 박성식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 이동석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장 박원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국대학교의료원**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진단에서 치료까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문 진료비 감면 혜택  
입원, 외래, 종합검진 10%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찾아가는 동창회 | 동행라이온스클럽

‘우리는 봉사한다’ 한 길 25년 ... 재학생 클럽 탄생 지원이 ‘꿈’



現 홍종표 회장



초대 조남풍 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동행라이온스클럽(회장 홍종표)이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회원 친목 및 사회봉사와 모교 발전 기여를 기치로 내건 동행(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라이온스클럽은 1996년 3월8일 엠베서더호텔에서 ‘헌장의 밤’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초대 회장에는 조남풍(88학번, 예비역 육군대장)동문이 추대됐다.

출범 준비작업은 스폰서 클럽인 새한라이온스클럽에서 활동중인 서영수(81학번) 행정대학원동문회 부회장이 앞장서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995년 12월 22일 모교 다향관에서 1차 예비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헌장의 밤’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는 봉사한다’는 국제라이온스클럽의 정신에 따라 동행라이온스클럽도

그동안 크고 작은 대외 활동을 펼쳤다.

초창기에는 조직강화를 위한 회원 증원과 친목에 비중이 높았다. 이 때문에 본래 취지인 사회봉사에 소홀한 것으로 비춰져 성장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자체 반성도 없지 않았다. 이에 2014년 회장으로 취임해 7년째 연임중인 홍종표 현 회장은 ‘사랑 나눔 봉사’를 동행라이온스클럽의 모토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대내외에 존재감을 과시했다.

‘사랑·나눔·봉사’ 모토로

2015년 10월27일에는 대학간 교류 및 친목, 지역사회 봉사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47년의 긴 역사를 가진 연세라이온스클럽과 자매결연을 맺어 상생을 도모했다.

주요 봉사활동으로는 2015년 정각원 산하 복지시설 4곳(어린이집 2개소, 복지관 2개소)과 동행연우회 산하 어린이집 14곳에 빵 2천개, 화랑도협회에 4천개의 빵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중림동 사회복지관과 영등포다문화지원센터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청소 용품과 송편 등을 전달하며 불우 이웃돕기

에 앞장 서왔다.

몇 년전부터는 대학생들과 탈북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청소년들의 면학을 장려하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학금은 모교 후배와 회원가족이 수여 대상이다.

또한 총동창회 행사 지원, 모교 로터스관 건립기금, 동국합창단 격려금 등 동국 발전에 동참함으로써 동국인으로서 남다른 자부심을 자랑하고 있다.

“회원 증원과 재정 확충 힘쓰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동행라이온스클럽이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첫째가 회원 발굴이다. 창립당시 30여명이었던 회원 수는 한 때 60명까지 늘어났지만, 지금은 다시 30명으로 줄어들었다. 회원 평균연령도 60대여서 젊은 피 수혈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음으로는 원만할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다. 라이온스의 봉사 활동은 대부분이 돈과 연결된다. 지금까지는 뜻있는 회원들의 특별찬조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지만 매년 특정인에게만 의지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두가지 과제를 푼 다음에 해야할 일에 대해 홍종표 회장은 “재학생 라이온스 클럽을 출범시키는 일이 꿈”

이라고 말한다. 그래야만 재학생들이 졸업해서 자연스럽게 라이온스에 가입하지 않겠느냐는 구상이다. 지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는 선배라이온스클럽에 의해 재학생 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또 하나의 바람은 과거 동국라이온스클럽이 활발히 활동했으나 2010년에 자동 해체되어 무척 안타까웠다면서 “동행라이온스클럽이 동국대학교총동창회 차원의 라이온스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

한편 홍종표 회장은 25주년 기념행사에서 “동행라이온스가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의 한결같은 참여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나름대로의 보람을 심으며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4반세기를 맞은 지금,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역할에 대해 정체성을 확실히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1971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라이온스클럽은 현재 215개국 48,716개 클럽, 1백37만6천5백여명의 회원을 가진 세계적 봉사단체다. 한국은 21개 지구 2천40클럽, 7만6천여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취재 : 신관호 동창회보 편집주간>



▲ 홍종표 회장 취임 및 김병은 회장 이임식이 2014년 6월26일 모교 상록원에서 열렸다.



▲ 동행라이온스클럽은 2019년 1학기 장학금을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전달했다.

고객에게는 가치를 ! 직원에게는 행복을 !  
최고의 내화물을 위한 끝없는 도전 !



# 총동창회 역사 (1) 1918년 '일심회'로 희망찬 출발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가 올해로 102주년을 맞았다. 10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묵묵히 걸어온 길은 모교와 영육을 함께 해온 역사다.

동창회의 한결같은 목표는 회원간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동문들의 화합단결을 이끄는 여러 활동을 비롯 모교 각종 행사 참여,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 등에 때 맞춰 역할을 해왔다. 때로는 모교 발전을 위한 쓴소리도, 행동도 서슴치 않는 등 시대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동창회 활동 모습도 달라졌다. 본 회보에서는 이러한 동창회 역사를 기록하는 측면에서 몇 차례에 걸쳐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우리 총동창회의 기원은 1908년 명진학교시대에 조직된 광학회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광학회는 1918년에 일심회로 개편되고, 이어 1928년에는 교우회로, 1941년에는 일광회로, 그리고 1951년에 동창회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는 동안 약 35만의 회원을 거느리는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 I. 초창기의 동창회

최초의 동창회는 명진(明進)학교 1회 졸업생이었던 이종욱·강용선·권상노·한용운·강대련·안진호 등이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발전을 돕고자 1908년에 조직한 광학회였다. 그러나 광학회는 교원·재학생·졸업생으로 조직된 것으로 이는 오늘의 교직원과 학생회·동창회를 합친 공동기구와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초대 회장에는 교장이었던 이보담이, 그리고 간사에는 졸업생인 권상노가 피선되었다. 이러한 광학회는 그후 본교가 불교사범학교를 거쳐 불교고등강숙으로 발전될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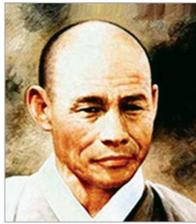
그러나 1918년 본교가 중앙학림으로 개편되면서부터 졸업생들은 종래의 광학회에서 탈피하여 졸업생만으로서 구축된 一心會를 조직함으로써 오늘의 동창회와 같은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1918년 초대 일심회 회장에는 한용운이 취임하였고, 이어서 반년만에 신상완이 회장이 되고, 이어 백성욱 김법린 정병헌 등 순으로 역임한 바 있었다.

그 후 1928년 3월에 본교가 불교전수학교로 승격되자 종래의 일심회는 동년 5월 28일에 학우회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학우회의 구성이 과거의 광학회처럼 재학생을 정회원, 교직원을 특별회원, 졸업생을 찬조원, 구직원을 특별찬조원으로 하고 또 그 역원은 이원적으로 하여, 회장 및 각부 부장은 교강사로 하고 간사는 학생 및 졸업생으로 선출하였다. 학우회 창립당시 회장에는 교장인 송종헌, 종교부장에 박한영, 총무부장에 김영수, 학예부장에 윤태동, 분문부장에 김법린, 체육부장에 이희상 등이 되고, 간사에는 박영희·박윤진·강유문·박봉석·박성희 등이 피선되었다. 학우회는 뒤에 교우회라 하였는데, 그 활동은 주로 동기관지인 「一光」지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1929년에 불교전수학교를 정식으로 전문학교로 승격시키는데 크게 앞장 선 일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당시 졸업생들은 학우회를 통해 재학생 및 교직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강유문·박윤진·박영희·박봉석·박이하 등으로 하여금 진정서를 학교당국과 교무원에 제출케 하는 한편, 동맹휴학 등을 지지하여 1930년에 정식으로 재단법인을 조직함으로써 정식 전문학교로 승격케 되었던 것이다.

## II 중앙불교전문학교시대의 교우회

본교가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되자 동년 5월 28일에는 종래 학우회로부터 학생회가 분리되어 나아가 순수한 학생자치단체가 됨으로써 학우회는 졸업생만의 조직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31



초대 한용운 회장



2대 백성욱 회장

년에 중앙불전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된 것을 계기로 교우회를 정식 동창회로 만들기 위한 법적 절차가 이루어졌다. 곧 동년 4월 17일 교직원회에서 「교우회와 학생회 분리의 건」이 제의되어 정식으로 결의됨에 따라 동년 6월 18일에는 前 교우회 청산위원회가 열렸다. 마침내 동년 7월 4일에는 학생회와 분리된 새로운 교우회의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 회장에는 김영수, 총무에 김경주를 각각 선출하고 간사에는 조학유와 김해운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2년 3월에는 제2회 졸업생을 맞이하여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서 회원증가에 따르는 업무보강을 위하여 간사를 3명으로 결의하되 조명기(제1회 졸업생)와 이갑득(제2회 졸업생), 그리고 조학유 등 3명의 간사를 새로 선출했다. 이리하여 졸업생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진흥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출발했던 교우회는 다음 제3회 졸업생을 낸 1933년에 뜻하지 않게 회원들은 모두 모교 문제로 신경을 경주하여야만 하였던 것이니, 다름아닌 중앙불전 폐지론이 바로 그것이다. 즉 동년 10월 16일 학교설립자인 중앙교무원의 임시평의회에서 이사의 총사직으로 말미암아 신입이사가 선출되었는데, 이 신입이사회에서 중앙불전 폐지론이 나왔다. 폐교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모교의 발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오던 교우회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즉각 재경 졸업생들은 10월 18일에 집합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토의를 하였다. 졸업생뿐만 아니라 모교 자체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당시 교수였던 석전사문(石顛)沙門 박한영이 근본교육과 명예사업과의 본말을 전도치 말라고 경고하였다(一光 제4호).

또 역시 교수였던 포광(包光) 김영수도 재단사업 정리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중앙불전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했었다(一光 제4호). 이러한 모교의 움직임에 졸업생들도 제각기 분개하여 한 마디씩 던지어 재단측의 번의(讎意)를 촉구한 바 있었다.



▲ 헤화전문학교 흥아과 1회 졸업 기념사진.

이와 같이 교우 회원간에 점점 고조화되어 왔던 모교 존폐의 위기의식은 마침내 재단이 보성고보(普成高普)의 경영권은 양도하되 중앙불전은 계속 경영할 것이라는 결의를 천명함으로써 해소되어졌다. 응당 그렇게 귀결되어야 할 일이지는 하지만 중앙불전 폐지론이 폐지됨에 이르러 교우회원들은 안도의 숨을 돌렸다. 그리하여 해마다 졸업생이 계속 배출됨에 따라 교우회원도 늘어났다. 그러나 졸업생과 교직원만의 회비로서 운영되었던 교우회의 살림살이는 그리 총족한 것은 못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해마다 회지인 「일광」지의 간행과 춘추 2회의 친목회, 그리고 신입회원의 환영회는 꺾(闕)하지 않았다.

## III. 헤화전문학교시대의 一光會

1940년 교명이 헤화전문학교로 개칭되고, 또한 다음 해인 1945년 헤전 1회 졸업생이 배출되게 되는 것을 계기로 교우회는 동년 3월 15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래 중앙불전시대의 교우회를 「일광회」로 개칭키로 결의했다.

일광회란 이름은 교우회의 기관지인 「일광」지의 지명(誌名)에서 따온 것이었으며 그 회칙 내용도 교우회 때와 거의 같았다.

일광회의 발족으로 명진학교 이래의 졸업생과 헤화전문 졸업생이 일체가 되어 모교발전에 기여하였다. 일광회 발족 당시 초대 회장에는 박윤진, 총무에 박봉석, 간사에 조명기·정두석·황성민·문기석 등이 피선되었다.

## IV. 동국대학교시대의 동창회

1945년 조국광복과 더불어 헤화전문으로 복구되고 개교를 보게 된 모교는 1946년 9월 동국대학교로 승격 개편됨과 동시에 종래의 일광회는 동창회로 개칭되었다. 해방 후의 동창회 임원은 헤화전문학교시대에 일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던 박윤진이 되고, 총무에는 조명기, 간사에는 김법린·정두석·이부열·박원서 등이 각각 피선되어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950년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그 기능을 일시 중지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1951년에 모교가 부산 피난지(부산 교무원)에서 문을 열자 곧 그 재건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년 8월에 부산 국제그릴에서 총회가 열리어 동창회의 재건이 다짐되었다. 이 때 부산에 자리잡은 동창은 물론 대구 대전 전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출신별로는 1908년의 명진에서부터 중앙학림 중앙불전 헤화전문 동국대까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감격적인 회포를 나누고, 동창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새삼 굳게 다짐 하면서 2대 회장에 백성욱박사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그 후 매년 총회가 정기적으로 열려야 했음에도 제반사정으로 근10년간 제때에 열리지 못함으로써 졸업생들 간에 적지않은 시비가 있어오다가 1960년 11월 임기만료로 자동해임이 된 임원의 개선이 있게 되었다. 부산이래 세 번째로 열리게 되었던 이 총회는 특히 현직으로 있는 총장의 동창회장 겸임을 분리시키려는

# 1947년 ‘동국대 동창회’로 개칭해 본격 활동 시작

당시의 문교정책과 시국의 추세에 따라 개최된 것이기도 하였던 것인 바, 이 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조명기 박사가 선임됨으로써 동창회의 기능은 다시 정상화되었다. 이 총회는 또 부회장에 이인성과 최계명을, 이사는 나상익, 이철수 엄상섭 이기형 송수용 김윤환 신원범 조원화 김동정 유연진 손상교 오민근 이민휘 홍사필 김성섭 등을, 그리고 간사에 이승룡 이창열 김종관 김인선 등을 선출했다. 이로부터 동창회는 해마다 총회를 정상적으로 갖게 되었고 임원개선도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동창회는 제구실을 다하게끔 되었다.

1962년 3월 25일에 있었던 정기총회에서는 8장 25조에 걸친 회칙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켜 동창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창회의 사업을 재확인하고 이어서 전면적인 임원개편이 있었다.

개정 회칙 통과에 따라 새로이 제4대 회장으로선 신경훈이, 부회장으로는 최계명과 도상효가 각각 취임하였고 이사로는 홍순지 이외윤 조원하 이근양 김성수 조희성 성정기 조창화 이원섭 김학송 탁광윤 김성섭 이기석 이인성 석명성 윤길주 심병두 주광조 김동정 등이 취임하였다.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동년 3월 31일에 우선 1억원의 장학기금조성과 동창회관 건립에 관한 구체안을 논의한 바 있었다. 다음해 1963년 2월 24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는 모교의 건전한 발전과 질적 상향을 위하여 문교부와 재단법인동국학원 이사장에게 보내는 건의안을 각각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 건의서는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나 불교분규가 모교에 미치는 경향을 우려하는 나머지 이룩된 것의 하나였다.

그 후 1964년 5월에 있었던 총회에서 백성욱박사는 제5대 회장으로 피선되고 이어 1968년 7월에 있었던 총회에서도 제6대 회장으로 중임되었다.

새 동창회는 모교 발전 기여를 더욱 적극화 하기 위해 재단에 동창대표 2명을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였다.

1963년부터 동창상호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친목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하여 동창회칙 제1장 총칙 제3조와 제6장 지부 제18, 19, 20조에 따라 지역별 또는 직장별 조직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정균을 회장으로 하는 부산 동창회가 조직된 것을 비롯하여 국·내외에 100여개의 조직을 보게 되었다.

동창회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의 하나는 모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의 모금이다. 본 대학에서 졸업생들이 재학생을 위해 장학기금을 모아 장학금을 급여하기 시작한 것은 설립당시인 명진시대부터였다.

그 후 본 대학 동창회는 각 시대에 걸쳐 장학기금을 모아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급여하여 왔는데, 동국대학교 이후에 있어서는 1963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곧 동년 3월에 동창회는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급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때 송재운(철학4), 김문환(정외4) 등 5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익년 1964년도에는 장학기금을 더욱 확대하여 지급대상자를 12명으로 늘렸다.

그 후 1966년에는 동창회사무실을 시내 서대문구 서소문동 84 한국빌딩 602호실로 이전함과 동시에, 모교의 발전을 학술연구와 체육진흥 양면에서 후원하고자 장학금 수여규정도 대폭 개정하여 장학금을 학술장학금과 체육장학금 두 종목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었다.

1964년에는 동창회 문고를 계획하여 다량의 서적을 모교 중앙도서관에 비치케 함으로써 재학생들의 면학동토를 조성하였다.



▲ 혜화동 교사에서 찍은 전문부 졸업생 일동.

1963년부터는 학과별 장학기금 조성운동이 일어나 불교장학회, 화학과장학회, 물리과장학회, 동영회장학회, FODE장학회 등이 발족되고, 또한 1966년부터는 한전동문회 등 직장별 장학회가 조직되었다.

1967년에 재일 동문들이 장학기금을 모집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 미국 영국 독일 동문들이 모교에 장학금을 계속 보내오고 있다.

여학생 동문들도 1962년에 동여회를 조직하여 초대 회장에 윤운순 동문을 선출하고 장학회를 조직하여 재학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각종 후생시설을 후원하고 있다.

1968년 광주를 비롯하여 매년 부산 대전 전주 대구 수원 인천 등지에 동문들이 모교의 양주동 서정주 이근삼 장경학 등의 교수들을 초대하여 「동국문학의 밤」 등을 개최하여 모교와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이밖에 체육진흥을 후원하기 위해서 동창회는 1963년에 동우체육회를 조직하였다가 모교에서 체육지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이를 해체하였다.

1968년에는 동국산악회를 조직, 대학과 동문, 재학생간의 유대강화 및 체력 향상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1968년 이후 동창회는 시행 착오로 말미암아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이에 모교에 재직중인 이병주 이용범 남도영 교수 등은 그 재건을 돕고자 재정인 후원을 하는 한편 축구후원회를 조직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1971년 5월 3일 시내 외교구락부에서 동문유지 33명이 모여 축구후원회를 발기, 창립하였다. 이 창립총회에서는 회장 문태식, 부회장에 김성섭 김준용 김진복, 상무이사에 민용식 조남철 김은하 류근창 김유복 김광학 홍봉래 임장용 최재구 이호성 한응국 이종필 정석구 이성호 한옥신 김용채 홍순지 이강욱 정형식 김영주 이병주 남도영 김상울 등 23명을 추대하여 1971년도 기금목표를 1천만원 확보에 두었다. 3일후인 5월 6일에는 제1차 상임이사회가 열려 이 자리에서 문태식 김준용 김성섭, 민용식이 각각 100만원씩을 회사하여 도합 400만원의 기금이 즉석에서 확보되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이 축구 후원회기금은 회장과 부회장의 공동명의로 영구적인 금전신탁으로 저금하기로 하고, 계속 성금을 모아 7백여만원을 예치하였다. 축구후원회의 성공은 동창회 재건을 더욱 자신있게 하였다.

그 이후 뜻있는 많은 동문들의 노력과 특히 학생처장으로 취임한 남도영 동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침체되어 있는 동창회의 재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것은 1971년이였다. 동년 12월 4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4백여 동문들이 모여 종래 「명목만의 동창회」를 「일하는 동창회」로 혁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임원개선에 있어 제7대 회장에 최재구 동문을 선출하고, 부회장과 임

원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회칙도 개정하여 동창회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의 전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선진규 외 150여 동문이 발의한 명예회장 제도 및 여자동문의 적극 참여조항 신설과 지도체제 강화, 회원 조직상의 미비점, 사무국 조직 결함등에 역점을 둔 개정안이 가결되어 구체적인 명문화는 새로 뽑힐 임원진에게 위임하는 한편 前 회장이던 백성욱박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사무국도 동년 12월 22일엔 시내 종로3가 고영빌딩에서 모교로 옮기는 등 출발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1972년 2월 5일 마침내 45명의 새 임원진 구성과 더불어 제1차 이사회가 열려 동창회의 현안문제와 사업계획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듯 하였다.

제7대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최재구
- 부 회 장 : 김준용 김동정 정임순
- 사무국장 : 선진규

이들 새로 구성된 동창회는 정체상태에서 활동하는, 단절상태에서 연결되는 동창회로 만들 것을 결의, 동년 3월 30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기금 조성과 조직 확대 등 당면과제를 논의하였던 바 당시 기금조성은 동창회 목적 수행을 위한 기본 원동력으로서 ①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② 모교발전의 촉진적 역할 ③ 대화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반을 구성하여 모금운동을 벌였다.

한편 조직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973년 여름 최재구 회장의 32명의 회원이 참가, 대전해수욕장에서 「동창회 조직확대의 효율적 방안」이란 주제로 제1회 하계세미나를 열어 제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회·지부조직이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5월 31일 법조인동문회(김병리) 창립을 위해서 한일은행(고일석), 국어과(유인식), 농학과(김홍배), 전국언론인회(최치근) 등의 창립이 동창회 조직확대운동에 큰 힘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 1972년 6월 30일에는 모교 서돈각 총장, 오법안 부총장의 취임 축하연을 개최하여 모교발전 에 헌신해 줄 것을 격려하고 1973년부터는 동문으로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분을 「동국을 빛내준 동문」으로서 축하해 주기로 하였다. 곧 김진복 허동화 류근창 황갑손 백영철 김인규 등은 당선 승진 영전 취임 등으로 각각 축하의 주인공이 되었다.

〈동국대학교 70년사(1976)에서 발췌〉

# “동국대와 함께 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중강당 좌석기부’ 캠페인 ... 반세기 역사의 중강당, 대학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 내부 모습.



▲ 중강당 각 좌석 뒷면에 등판으로 붙인 일부 네이밍 참여자 이름과 메시지.

모교가 지난 7월 본관 중강당 좌석에 본인의 메시지를 남기는 네이밍 운동 ‘중강당 좌석기부’ 캠페인을 시작한지 한 달여 만에 100석을 돌파했다.

‘중강당 좌석기부’ 캠페인은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 433석의 좌석에 일정액의 후원과 함께 본인의 이야기와 이름을 새기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공개 후 동문, 교직원, 불자 등의 참여가 이어졌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내 생애 최고의 만남! 동국! 영원한 마음의 고향! 동국!”이라는 문구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스님은 “인

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라는 문구를, 윤성이 모교총장은 “감사 · 배려 · 존중,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원력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중강당은 1958년 12월 완공된 이래, 지난 60여년간 동국인들의 배움과 교류의 중심지였다. 지금처럼 온라인 강의가 없던 수십 년 전, 명사의 강연이 있는 날이면 학생, 일반인 등 배움을 갈구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강당에 빼곡히 모여 앉아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국내·외 학술 행사와 학생들의 동아리 공연 무대

가 열리기도 했으며, 누군가에게는 가슴 벅찬 졸업장을 받은 추억의 공간이기도 했다.

김애주 대외협력처장은 “중강당은 동국인들의 추억의 공간이자 동국대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공간 중 하나다. 그런 공간을 동국인들의 메시지를 통해 스토리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바꿔보자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취지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까 걱정도 했지만, 한 달 만에 100석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며 동국인들의 학교 사랑을 실감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좌석기부는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love.dongguk.edu/auditorium)에서 참여할 수 있다. 좌석은 크게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중강당 무대를 기준으로 전면 가운데 3열은 S석, S석을 제외한 나머지 전면 좌석은 A석, 후면 좌석은 모두 B석에 해당한다.

한편 433개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길 중강당 좌석 명패 이미지는 추후 발전기금 홈페이지(love.dongguk.edu)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국내 사립대학 기부금 순위 6위

최근 4년간 매년 1백억원 이상 모금

모교가 2019년 국내 사립대학 기부금 순위에서 6위에 랭크되었다. 최근 공시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9년 동국대학교가 모금한 기부금은 총 102억원으로 국내 사립대학 중 고려대(555억), 연세대(408억), 한양대(149억), 이화여대(144억), 성균관대(130억)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2019년 100억원 이상을 모금한 대학은 동국대를 비롯해 이상 6개 학교가 전부다.

모교는 2016년 131억원(9위), 2017년

116억원(8위)을 모금한 데 이어 2018년에는 136억원(5위)을 모금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국대학교에 기부한 후원자는 5,500여 명에 달했다. 동문이 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교직원(21.5%), 불교계(20%), 기업/재단(4.7%), 학부모(3.1%) 등이 뒤를 이었다. 후원자별로 총 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재단(45%), 불교계(25.5%), 동문(18%), 교직원(8%), 기타(2.8%), 학부모(0.6%) 순이다.

## 대학교 브랜드 평판 9월 분석 13위

모교는 대학교 브랜드 평판 2020년 9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3위로 나타났다. 7월 분석에서는 10위, 8월은 14위였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9월4일 발표한 대학교 브랜드 평판 지수는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9월3일까지 국내 100개 대학교 브랜드 9910만7884건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모교는 △참여자지수 790,340 △미디어지수 219,685 △소통지수 1,057,048 △커뮤니티지수 144,545점으로 평판지수 2,211,626점을 받았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을 측정할 수 있다.

## 축구부, 9년만에 우승컵 높이 들다

추계대학 축구연맹전 결승서 승실대에 2-1 승리



▲ 축구부 선수들이 우승컵을 높이 들고 환호하고 있다.

모교 축구부가 9년 만에 전국추계대학 축구연맹전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축구부(감독 안효연, 체교97)는 8월28일 강원도 태백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56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결승전에서 승실대를 2-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축구부는 8강전에서 호남대를 2-0, 4강전에서 사이버외대와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로 5-3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모교는 승실대에 0-1로 뒤진채 전반을 마감했으나 후반 17분에 황명현(1학년)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 후반 30분 이규빈(2

학년)의 결승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모교 축구부는 2010-2011년 전국추계대학 축구연맹전 2연패, 2013년 U리그 중부2권역 우승, 2014년 제11회 추계 1,2학년 대학축구대회 우승을 한 바 있다.

이날 결승전 응원을 위해 태백종합경기장을 찾은 윤성이 총장은 “용맹정진 동국대 축구부의 정신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였다”며 “그동안 안효연 감독의 지도하에 모든 선수들이 흘린 땀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축구 명문 동국대의 명성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대학 발전기금 각계에서 답지하다

## 학교법인 이사 호산스님 3천만원



학교법인동국대학교 이사 호산스님(조계종 수국사 주지)이 8월27일 학교법인동국대학교 발전기금으로 3천만원을 이사장 성우스님에게 전달했다. 호산스님은 "학교법인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 최대식 前 모교 법인 감사 3천만원



최대식(회계79, K&C세무회계사무소대표) 동문이 7월9일 모교 윤성이 총장실을 방문, 학교발전기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교육환경개선과 회계학과 발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최 동문은 학교법인동국대학교 감사를 역임했으며, 동국기업인모임(DHC) 회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발전과 동문 사회의 화합에 기여해왔다. 모교를 위한 기부도 꾸준히 이어온 최 동문의 기부금액은 현재 5천만원에 달한다.

## 불교아동보육학과 동문 2천만원

경주캠퍼스 불교아동보육학과 동문들이 8월19일 불교아동보육학과에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백지숙 불교아동보육학과 90학번 대표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불교아동보육학과와 자부심을 느끼고 후배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불교아동보육학과는 현재까지 1,2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매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 김상애 실장 정년기념 장학금 2천만원



모교에서 40여년을 근무하고 8월 31일 정년퇴직한 김상애 불교대학(원) 학사운영실장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2천만원을 윤성이 총장에게 기탁했다. 장학금은 김 실장의 법명을 따 '해명장학'이라 명명되어 형편이 어려운 불자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남궁 원 동문 1천만원



남궁 원(생명자원경제93, ㈜에코누리시스템 대표)가 7월13일(월) 윤성이 총장에게 발전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남궁 대표는 학창 시절 윤성이 총장의 사사를 받은 첫 번째 제자로, 현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에코누리시스템)를 운영하고 있다.

## 경찰사범대학 캠퍼스폴리스 '1천만원'

경찰사범대학 캠퍼스폴리스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7월10일 모교에 1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한 1천만원은 재학생 100여명이 후배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실시일반 모금한 금액이다. 2011년에 출범한 캠퍼스폴리스는 경찰사범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 봉사활동 단체로 늦은 시간 귀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교내 화장실 몰래 카메라를 탐지하는 등 학내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경찰청·중앙일보 주최 '제1회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을 수상했다.

## 경주캠 ROTC 총동문회 장학기금 1천만원



모교 경주캠퍼스 1121 ROTC총동문회(회장 정육현)는 9월22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화백홀에서 경주캠퍼스 이영경 총장에게 장학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정육현 1121 ROTC 총동문회장과 최재원 前 회장, 손용익 수석부회장은 이어 학군단을 방문한 총동문회는 ROTC 후보생 5명에게 50만원씩 총 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조은솔 동문 '대물림 장학' 2배 기탁



조은솔(국어국문10)동문이 6월30일 모교를 방문해 국어국문학과 만해가사장학금으로 4백만원을 기부했다. 졸업 후 4년이 지난 지금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대물림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한 조 동문은 "더 많은 후배들이 혜택 받기 바라는 마음에서 당시 수여받았던 200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4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 후진양성 교수 16명 정년퇴임

모교에 봉직하며 후진 양성과 대학발전에 헌신해온 교수 16명이 8월31일자로 정년퇴임했다. 캠퍼스별로는 서울캠퍼스 15명, 경주캠퍼스 1명이다. 학교당국은 정년퇴임 교수에게 공로패를 전달, 노고를 기렸다.

### ■ 서울캠퍼스 퇴임교수

△영화영상제작학과 최병근(학과장 역임) △불교학부 정승석(학장 및 일반대학원장 역임)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김무봉(교무처장 역임) △수학과 이주성(학과장 역임) △화학학과 석원경(중앙도서관장 역임) △법학과 박병식(비교법문화연

구소장 역임) △법학과 정용상(법과대학장 역임) △법학과 최정일 △경제학과 이성량(사회과학연구원장 역임) △국제통상학과 광노성(대외협력처장 역임) △경찰행정학부 이윤호(경찰사범대학장 역임) △전자전기공학부 박형무(연구처장 역임) △화공생물공학과 이의수(기획부총장 역임)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변기홍(학과주임교수 역임) △역사교육과 강택구(학과장 역임)

### ■ 경주캠퍼스 퇴임교수

△불교아동보육학과 이수경

## 방사선 신틸레이터 신물질 개발

임현식(물리반도체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새로운 메커니즘을 이용한 액체타입의 엑스레이 이미징 신틸레이터에 관한 연구결과를 Nature-springer에서 발간하는 세계 유명 학술지 "Light: Science & Applications (Impact Factor: 15, JCR 상위 1.5%)"에 게재했다.

## 생명공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게재

김교범(화공생물공학과)교수 연구팀이 치료용 성장인자와 지방유래 줄기세포의 체내 동시 전달을 통한 관절 조직재생에 관한 최신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생체재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저널 오브 컨트롤드

리리스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Impact Factor: 7.727, JCR 랭킹 상위 5%)에 발표됐다. 미국 코넬대 및 서울대 수의대 연구진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 2학기 학부 등록금 5% 감면

모교 재학생들이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받았다. 감면 금액은 등록금의 5% 수준이다. 이에 따른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약 20만원 수준이며 계열에 따라 최소 17만3천원에서 최대 28만2천원까지 감면되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약 25억원에 달한다.

학교당국은 지난 5월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코로나19 학생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학생대표자들과 학교 측 실무진 동수(4+4)로 구성된 이 협의체를 통

해 2020-2학기 등록금 감면에 대한 최종 합의(안)를 도출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 정책조정회의, 교무위원회의를 거쳐 8월18일 등록금 감면액을 최종 확정했다. 재원은 적립기금, 예산 절감액(행사, 관리비 등), 미집행 장학금(해외탐방 장학 등) 등으로 마련했다.

한편 모교는 지난 1학기 기부금 모금을 통해 10억 원을 마련하고,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생활비성장학금(코로나19 극복 장학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2천명에게 지급한 바 있다.

## 내분비계 장애물질 판별시험법 개발

모교(총장 윤성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동물실험을 대체하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물질(환경호르몬)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했다. 이 시험법은 국내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색시험 가이드라인으로 공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동국대 박유현 교수(식품생명공학과)는 기존 시험법의 치명적 단점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간섭을 유전자 편집 기술로 해결하여 안드로젠 수용체 전사활성 시험법 개발에 기여했으며, OECD 주관 국제공동검증연구에 참여했다.



**dongguk UNIVERSITY**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올비른 문화 우수 기업 선정**  
**한국의전협동조합**

따뜻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의전협동조합은 장례의전의  
규격화, 합리화, 명품화를 실천합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장 **류 재 승**  
(장례비즈니스아카데미과정 · 200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번길 98 (행신동)  
Mobile 010-3788-1130 / Tel 031-925-0841, 1644-2542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원 지 팜**  
WOW JI PHARM

원지팜 사장

**이 상 칠**  
(사회학과 79入)



Mobile. 010.4396.7451 · E-mail, jangdoll77@hanmail.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2길 7, 4층 (청담동)  
Tel. 02.3442.7061 / Fax. 02.3442.7062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주)성림조경** Tel 054.773.3002

**명진산업(주)** Tel 054.773.8003

**진명산업(주)** Tel 054.773.8366

대표이사 **곽 석 운** (최고경영자과정 2009)  
Mobile 010.3587.0088

www.dryoven.com

**태양기업 Sun Enterprise**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각종 건조설비**



대표 권 희 경

앞선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조설비 전문업체

1981.04.15 태양기업 설립  
1995.04.05 태양기업 인원증정 준공 및 이전  
1996.04.16 URAY 연구소와 UV 기술이전 계약체결  
1997.01.14 일본 다쿠보 엔지니어링사와 기술제휴/대리점 계약체결  
1997.12.01 산업자원부 청정생산기술개발 사업체로 선정  
2000.02.2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체로 선정  
2000.03.28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으로 지정  
2000.08.25 인천광역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  
2002.07.23 신공장으로 확장이전(대지 1000평 건물 1200평)  
2004.10.11 특허청 실용신안등록 제0365433호 (알유출방지 구조를 구비한 박스타입 드라이 오븐장치)  
특허청 실용신안등록 제0365434호 (박스타입 구비한 박스타입 드라이 오븐장치)  
2005.01.06 특허청 특허 제0373369호 (위켓타입 드라이 오븐 장치)  
2005.02.21 특허청 특허 제0377331호 (재트 적외선 타입 드라이 오븐장치)  
2005.08.12 인천중소기업진흥지원센터 인원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2005.11.30 무역의 날 "400만불 수출탑 수상"  
2007.04.01 MICROWAVE 전문기업 MIC합병  
2011.11.30 무역의 날 "300만불 수출탑 수상"  
2012.05.17 지식경제부 표창장 수상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각종 "슬러지" 건조장치

-Microwave C/V 해동기

-Microwave 대형 Oven

-Microwave C/V 살균장치

-Microwave C/V 건조장치

-Microwave C/V Dry Oven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방 장 중봉 성파대종사  
주 지 이산 현문  
전제사 중산 해남

유 나 은산 중도 총무국장 중 현 사회국장 성 오  
강 주 수담 인혜 기획국장 지 범 포교국장 선 행  
염불원장 영 산 교무국장 인 경 호법국장 천 주  
박물관장 송 천 재무국장 현 담 원 주 범 용

영축총림 통도사 대종일동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번지)  
전화 : 055)382-7182 팩스 : 055)382-7196 www.tongdosa.or.kr

### ‘대한민국 혁신경영대상’ 이창규 고문



이창규(경영62, DK메디칼솔루션 회장) 본회 고문이 8월1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2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혁신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혁신경영대상은 기존 경영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혁신적 경영을 통해 크게 기업을 발전시킨 경영자에게 수여한다. 지난 50여년간 의료기기 산업에 종사하면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이뤄왔고, 영상진단 의료장비인 디지털 X-ray 국산화와 기술개발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 및 혁신을 이끌어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올해 22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는 전국 40여개 경영관련학회와 경영학 교수,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최재성



최재성(불교84) 동문이 8월11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취임했다. 야당과의 소통이 주된 업무인 최 정무수석은 8월13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국민들께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일하겠다”며 “야당을 진심으로 대하고 소통이 아닌 대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최 동문의 정무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시민운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해 여당 대변인, 사무총장 등을 두루 거친 4선 의원 출신으로 정무적 역량뿐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며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여야협치 복원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DB손해보험 부회장 김정남



김정남(행정72) 동문이 7월13일 단행된 DB그룹 경영진 인사에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1979년 DB그룹에 입사한 후 1998년부터 DB손보에서 근무해 왔다. DB손보에서 지방영업본부장을 시작으로 개인영업 총괄 상무와 경영지원총괄 상무, 신사업부문총괄 부사장, 개인사업부문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2010년 사장으로 임명된 뒤 4연임해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통한다. 주요 손보사의 CEO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과 보상, 신사업 등 보험업 전 분야를 경험했다. 평소 ‘실상추구’, ‘상호소통’, ‘자율경영’을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해왔다.

### 국민의 힘 원내대표 주호영



주호영(불대원10) 동문이 5월8일 국민의 힘(옛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대구 수성구갑이 선거구인 주 원내대표는 17대부터 21대까지 내리 국회의원에 당선된 5선 중진이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조직, 정책, 홍보, 선거준비 다시 하면 못할 바가 없다”며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해 당을 재건하고 수권정당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당의 여의도연구소장, 원내수석 부대표, 인재영입위원장, 정책위원회 의장을 거쳤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한민국 특임장관,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지냈다. 독실한 불자로 국회 불자들의 모임인 정각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 훈



서 훈(대학원박사과정02) 동문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2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으며, 지난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008년 3월 퇴직 때까지 총 28년 3개월을 근무한 ‘정통 국정원맨’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대북통이다. 1996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를 지낸 당시 경수로 건설을 위해 북한에 2년간 상주했고, 개성공단 건설 협상을 주도하기도 해 한반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안보실장에 적임자로 꼽혀 왔다. KEDO 근무와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등을 거치면서 해외 업무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노웅래(언론정보99) 동문이 8월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로 인해 유례없는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 최고위원은 당선인사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하고 “4선의 정치력과 경험으로 당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더 안정감 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의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올해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과 MBN,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참관장은 의원상 종합대상을 받았다.

**EUNMIN** | Interior Design | Architecture | Construction | Exhibition |

We design the future of space with value in mind.

생활과 공간의 가치를 연구하고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은민은 ‘인간 중심의 창조’와 ‘고객만족’이라는 경영이념으로 1998년 창립 이래 인테리어 업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은민은 보여지는 공간을 넘어 고객의 마음 속에 담겨지는 공감의 공간을 창조합니다.



Value of Better Life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6 (논현동, 은민빌딩) Tel. 02-6930-2300 Fax. 02-6930-2392 www.eunmin.co.kr  
 | Seoul HQ, Korea | Beijing, PR China | Hanoi, Vietnam | Phnomphen, Cambodia | Qatar | Sri Lanka | Saipan | Hungary |

유튜브방송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 대세를 타고 우리 동문들도 다수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회가 최근 수집한 유튜브는 이영구(불교64, 前 부산MBC 아나운서·前 불교방송 총괄국장)동문의 '왕오전축국전', 황 헌(영문78, 前 MBC보도국장) 동문이 운영하는 정통 와인 TV '와인채널', 이송원(공경82)동문의 '이송원tv', 김종필(정외82, 내일신문 이사) 동문의 '김종필 TV-JP GO 종필아가자', 이경실(연영84, 연예인)동문의 '주부 경실', 차연신(연영85, 와이에스피씨엠씨 대표이사)동문의 '차연신TV', 백재욱(법학92, 경북교육신문 대표)동문의 '떡잎edutv' 등이다. 이밖에 정치인을 비롯 종교 사회 경제 각 분야의 동문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구 동문이 진행하는 왕오전축국전은 부산 MBC의 트로트 노래 중심 채널로 2020년 2월 개통했으며, 현재 시청자수는 2만5천여명이다. 한국최초 민간상업방송인 부산 MBC가 보유한 3만여장의 전축 LP판을 활용해 옛 가수들의 노래를 들려주고, 최근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를 곁들여 시청하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황 헌 동문의 와인채널은 9월1일 개국했으며, 와인의 종류부터 포도 품종과 역사, 지역별 차이, 에티켓, 셀럽의 와인 이야기 인터뷰, 실제 음식과 와인을 즐기는 먹방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 유튜브방송 활동 동문이 늘고 있다

이영구 황헌 김종필 이송원 이경실 차연신 백재욱 등



이영구 동문



황 헌 동문



김종필 동문



이송원 동문



이경실 동문



차연신 동문



백재욱 동문

선보이게 된다. 진행은 황헌 동문과 프랑스대사관 상무관 출신인 와인경영아카데미 한관규 원장, 프리랜서 임지현 아나운서가 공동 진행한다.

이송원 동문의 '이송원 TV'는 정치·경제·사회 분야로 민주진보 유튜브 조회수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18일 개국했으며, 지금까지 발표된 콘텐츠만 7,8천개에 이른다. 오전 8건, 오후에 8건 등 하루에만 16건씩 쏟아내고 있는 콘텐츠는 시사 중심의 심도있는 분석과 역사이론한 진행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총 조회

수는 1천만명을 넘어섰다.

김종필 동문의 '김종필TV'는 2019년 7월17일 개통했으며, 시사와 정치 중심 내용이 주를 이룬다. 주권자 TV, 숨통TV, 협동TV를 지향하며 한국 사회의 실상과 정치의 속살을 파고 들고 있다. 9월10일 기준으로 구글이 제시한 유튜브 파트너 기본요건인 구독자 1천명, 시청시간 4천시간(4,064시간)을 돌파했다. 김종필 TV에는 동영상 155개가 올려져 있다.

이경실 동문의 '주부 경실'은 올해 7월2일 첫 방송을 내보냈다, 인기 개그

우먼이라는 인지도와 주부대상 콘텐츠 때문에 조회수가 상승하고 있다. '이경실과 92세 엄마가 함께하는 황금 레스피'를 비롯 주부들의 다양한 주변 일상들을 특유의 재치와 유머로 담아내고 있다.

차연신 동문의 '차연신TV'는 부동산과 피아노세상 등 2개의 유튜브를 운영한다. 2019년 4월 개국한 부동산 유튜브는 부동산 정보와 투자 전문 채널로 구독자는 2,300명이며 지금까지 250여 동영상에 공개됐다. 피아노세상 채널은 피아노음악 감상용으로 2019년 5월 시작해 부정기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백재욱 동문의 '떡잎edutv'는 사주 분석을 통해 자녀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고 부모-자녀간 진정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떡잎(꿈)을 보호하여 꿈이 있는 아이,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지향하고 있다. 9월 18일 첫 방송을 내보냈으며, 광고수익 전액은 아이들을 위한 떡잎기금으로 적립한다.

유튜브는 당신(You)과 브라운관(Tube, 텔레비전)의 합성어로 2005년 11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2006년 10월 구글이 유튜브를 16억 5000만 달러에 전격 인수하였고, 2007년부터는 국가별 현지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한국어 서비스는 2008년 1월이며, 현재 80여개 모국어로 방송되고 있다.

### 취 임 · 영 전

#### 평북장학회 이사장



장봉헌(경행68) 동문이 재단법인 평북(평안북도)장학회 이사장으로 8월17일 취임했다. 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충남경찰청 차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등을 지냈으며 치안감으로 퇴직했다.

#### 양평군의회 후반기 의장



전진선(경행79, 양평군의회 의원) 동문이 6월26일 열린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1986년 경찰간부후보 34기로 경찰에 입문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 양평경찰서장, 여주경찰서장을 거쳐 2018년 2월 경무관으로 퇴임했다.

#### 한국전력기술 경영관리본부장



함기황(경제80) 동문이 8월14일 열린 한국전력기술 주주총회에서 경영관리본부장에 선임됐다.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장, 한전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남요원(철학81)동문이 9월1일자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에 선임됐다.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을 거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세종문화회관 정책보좌역, 청와대 문화비서관실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단장



박윤석(법학83) 동문이 9월3일자로 발령된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으로 영전했다.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차장등을 역임했다.

#### 강릉산림항공관리소장



이영주(국문83) 동문이 산림항공본부 제9대 강릉산림항공관리소장으로 7월6일 취임했다. 1990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산림청, 산림교육원, 동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과장 등을 지냈다.

####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심사위원장



양윤호(연극영화86, 영화감독, 한국영화감독협회 회장) 동문이 제2회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 단편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7월30일 작품심사를 거쳐 영화제는 10월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2016년부터 한국영화감독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연수원장



김병국(대학원산업공학95) 동문이 7월초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장에 부임했다. 지난 2004년 중진공에 입사한 후 부산지역본부, 기업인력지원처, 경남지역본부 등 현장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지역 중소기업 성장에 앞장서 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본부장



서명철(행대원08) 동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으로 7월1일 취임했다. 199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해 경영지원실장,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역임했다.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김재훈(행대원17) 동문이 7월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에 취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장, 조사2과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 전 시 · 공 연

#### 오성만 화업 30년전 개최



오성만(미술82) 동문이 '오성만 화업 30년전 - 조형언어를 탐하다' 전시회를 8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 용인 한국미술관 1,2층 전관(용인시 마북동 소재)에서 열고 있다.

#### 연극 '레미제라블' 여자 주인공



인기 걸그룹 티아라 멤버 함은정(연극학부 07)동문이 연극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발장의 양녀 '코제트'역을 맡아 무대에 섰다. 연극무대는 첫 도전으로 8월7일부터 16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돼 호평을 받았다.

경찰청 고위 간부 인사

치안정감에 최해영 동문 등 3명 승진



최해영 치안정감    진정무 치안정감    김병구 치안정감

지난 8월4일 발표된 경찰청 인사에서 동문 3명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최해영(경행79)동문은 치안정감 승진과 함께 대전지방경찰청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또 진정무(대학원 박사수료07) 동문은 경남지방경찰청장에서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김병구(대학원 박사수료09) 동문은 제주경찰청장에서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직급인 치안정감은 13만 경찰가운데 6자리뿐인 고위직이다.

치안감 승진 및 전보



윤동춘 치안감    최관호 치안감    이규문 치안감    우중수 치안감

8월5일자로 발령된 경찰청 치안감 승진 및 전보 인사에서는 최관호(경행84) 동문이 광주지방경찰청장에서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동춘(국문80)동문은 경찰청 보안국장에서 경북지방경찰청장에, 이규문(대학원 박사과정)동문은 경찰청 수사국장에서 대전지방경찰청장에 각각 취임했다. 우중수(대학원 박사과정)동문은 치안감 승진과 함께 중앙경찰학교장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영전했다.

경무관 전보



고기철 경무관

8월7일 발표된 경무관 전보에서는 고기철(경행82)동문이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명성(대학원 박사)동문은 경찰청 대변인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제3부장으로 이상률(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동문은 경찰청 치안정책관으로, 김광호(행원 석사)동문은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에서 경찰청 대변인으로 각각 부임했다.

총경 전보 발령 (8월17일자)

8월18일 단행된 총경 인사에서는 21명의 동문이 보직을 이동했다.

- △ 강석현 (경행82) = 인천 서부경찰서장
- △ 이동민 (경행82) = 전북지방경찰청 보안과장
- △ 최성영 (경행83)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 △ 박영수 (전자공학83) = 서울 동작경찰서장
- △ 김신조 (경행85) =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 △ 황석현 (경행85) = 광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 △ 오충익 (경행86) = 제주 동부경찰서장
- △ 장원석 (경행86) = 제주지방경찰청 형사과장
- △ 고영재 (경행87) = 전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장
- △ 김택수 (경행87) = 강원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 △ 김범상 (경행88) = 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 △ 박현규 (경행88) = 강원 태백경찰서장
- △ 정성일 (경행89) =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 △ 임육성 (경행90) = 전남 영광경찰서장
- △ 김기현 (경행92) = 경찰대학 학생과장
- △ 김경열 (경행92) = 세종지방경찰청 생활안전수사과장
- △ 김찬수 (경행93) = 전남 완도경찰서장
- △ 허성희 (경행94) =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과장
- △ 이재경 (대학원 박사07) = 전북 부안경찰서장
- △ 김형섭 (행원 석사90) =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 △ 장종근 (행원 석사03) = 울산 울주경찰서장
- △ 서동수 (행원 석사01) = 경북 문경경찰서장

한가위 '자비의 쌀 나눔' 미담

2008년부터 불우이웃 위해 매년 전달



▲ 원법사 주지 해운스님(사진 중앙)이 포항시청에 올해 분 쌀 1,100포를 전달했다.

해운스님(불교11, 대한불교 서명종 원법사 주지)은 한가위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잇단 태풍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9월14일 포항시청에 백미10kg들이 1,100포(31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해운스님은 "오늘 1,100포의 쌀을 전달함으로써 모두 9,500여포(2억8,500만원 상당)를 넘어서면서 지난2008년 처음 목표로 삼았던 1만포 기탁에 성큼 다가섰

다"며 "자비와 보시행을 실천하는 원법사 사부대중의 원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부 포항에 소재한 원법사는 매년 설과 추석을 맞아 지역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물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지진 발생시에도 이재민 성금 1,000만원을 기부해 훈훈한 미담이 되었다.

수 상

제33회 동국문학상 수상



허진석(국문83, 시인) 동문이 9월25일 동국문학인회(회장 장영우)가 제정한 2020년도 제33회 동국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모교 명진관 124호 강의실에서 '동국시집' 제47집 출판기념회와 함께 열렸다.

허 시인은 1985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했으며, 시집 '타이프라이터의 죽음'으로부터 불법적인 섹스까지 'X-레이 필름 속의 어둠', '아픈 곳이 모두 기억난다'가 있다. 중앙일보 체육부장, 아시아 경제 부국장을 거쳐 현재 한국체대 교양교직 과정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대 수상자는 시인 신경림, 박제천, 윤제림, 공광규, 소설가 조정래, 이상문, 정찬주, 문학평론가 홍기삼, 유한근, 장영우, 송희복 등이 있다.

제20회 노작문학상 수상



박소란(문예창작00) 동문이 제20회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시집 '한 사람의 단한 문' (창비)이다.

심사를 맡은 문정희·안도현 시인, 박수연 문학평론가는 "박소란의 시는 조용하고 진지한 시각으로 시공간을 펼쳐놓는다"며 "한국 문학의 젊은 목소리가 지닌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수상작은 문예지 계간 '백조'에 실릴 예정이다.

2009년 문학수첩을 통해 등단해 시집 '심장에 가까운 말' (2015), '한 사람의 단한 문' (2019)을 출간했다.

신 간

'군사협상론' 출간



김성진(무역79, 극동대 군사학과 교수)동문이 군사학도와 사관생도, 초급 연구자들을 위한 군사학 총서 제1호 '군사협상론'을 출간했다.

군사협상의 특성상 공개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기본적 원리와 과정, 갖추어야 할 태도 및 기술을 예시하는 등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다.

학습 개요와 선행 과제를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사례 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구성하고, 군사적·비군사적 측면이나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등 현황 자료는 최대한 검증하였다.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영문판



황경환(교육대학원 87,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동문이 7월초 자신의 저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을 영문판으로 출간했다.

'108개의 그물코', 깨달음의 여정에서 건너 올린 108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진 이 책은 허깨비 장난 같은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구도자가 '법의 그물'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어부 황경환의 평생에 걸친 노작이다.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주)분당추모공원휴

대표이사 **서 지 석**

(장례비즈니스아카데미과정 · 2009)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211-49 (능평리)  
Mobile. 010-3400-3963 / Tel. 031-762-3000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사효실버타운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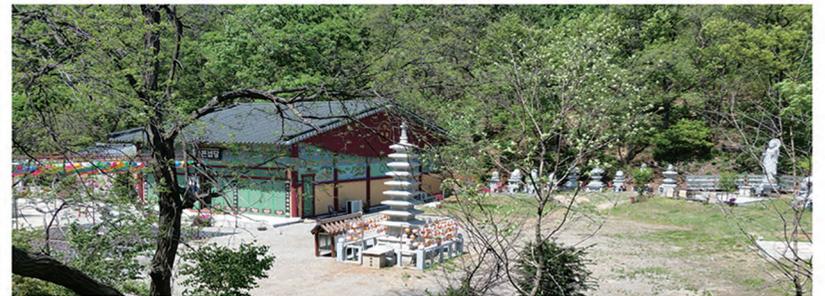
대표 **윤영현**  
(영어영문학과 84入)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92길 18  
Tel. 053-588-2166 / Fax. 053-588-2167

교육, 문화, 포교 중점 도량

# 대한불교 조계종 **법명사**

명상박물관 / 인천불교대학



**회주 미광선일** (인도철학과 73학번/석사/박사수료)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163-22 (가좌동)

대표전화 (032)577-5108



# 대자기업주식회사

ISO 9001 인증

(토공, 비계, 철근·콘, 상·하수도, 금속창호, 포장)

대표이사

# 조 석 규

(토목 68入)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4, 3층 (양재동, 호성빌딩)

Tel. (02) 579-7651~2 / Fax. (02) 579-7650  
E-mail. djcc579@hanmail.net



INHIVE  
contents group

VR/AR/MR 콘텐츠 제작  
S3D 영상 제작, 홍보영상 제작



(주)인하이브 | 08594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5, 912호(대륭테크노타운 20차)

TEL. 02) 6012-9157  
FAX. 02) 6012-9158

Homepage. www.inhive.co.kr  
E-Mail. inhiveyou@inhive.co.kr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 2020년 6월 29일 ~ 9월 22일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b>발전기금</b> 400만원	 박대신 (69국어국문) 총동창회장	 김한배 (68연료공학) 풍년 회장	<b>고문 분담금</b> 100만원	 김종규 (58경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박중환 (55경제)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윤성이 (83농업경제) 동국대학교 총장	 인중식 (53경제) 에스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공기태 (79화학공학) 세움트레이딩 대표이사	 김애주 (76영어영문)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장		 김종욱 (71행정) 더한힐리더십센터 원장	 박상범 (74경영) 경주캠퍼스 경영학과 교수	 박영순 (92산업대학원) 前 공무원	 법운스님 (95불대원) 청룡사 주지스님	 윤종기 (79경찰행정)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b>부 회장</b> 100만원	 이희경 (68경찰행정) 前 강원경찰청장	 정진태 (00행대원) 진우산전 대표이사	 차준은 (64경영) EUNSUNG MEXICANA S.A de C.V	 홍석표 (75경영) (사)전국퇴직금공안협회 부회장	<b>감사</b> 100만원	 윤병관 (82화학공학) 이지상사 대표이사	<b>특별회비</b> 100만원	 서거원 (60경제) 태광에너지 대표이사

- |                  |                                                                                                                |                                                                                                                                                                                                                                                                                                             |                                                                                                                                                                                                                                                                                                                                                                                                                                                                                                                                                                                                                                 |                                                                                                                                                                                                                                                                                                                                                                                                                                                                                                                                                                                                                  |                                                                                                                                                                                                                                                                                                                                                                                                                                                                                                                                                                                                      |                                                                                                                                                                                                                                                                                                                                                                                                                                                                                                                                                                                                                                         |                                                                                                                                                                                                                                                                                                                              |              |                                                               |
|------------------|----------------------------------------------------------------------------------------------------------------|-------------------------------------------------------------------------------------------------------------------------------------------------------------------------------------------------------------------------------------------------------------------------------------------------------------|---------------------------------------------------------------------------------------------------------------------------------------------------------------------------------------------------------------------------------------------------------------------------------------------------------------------------------------------------------------------------------------------------------------------------------------------------------------------------------------------------------------------------------------------------------------------------------------------------------------------------------|------------------------------------------------------------------------------------------------------------------------------------------------------------------------------------------------------------------------------------------------------------------------------------------------------------------------------------------------------------------------------------------------------------------------------------------------------------------------------------------------------------------------------------------------------------------------------------------------------------------|------------------------------------------------------------------------------------------------------------------------------------------------------------------------------------------------------------------------------------------------------------------------------------------------------------------------------------------------------------------------------------------------------------------------------------------------------------------------------------------------------------------------------------------------------------------------------------------------------|-----------------------------------------------------------------------------------------------------------------------------------------------------------------------------------------------------------------------------------------------------------------------------------------------------------------------------------------------------------------------------------------------------------------------------------------------------------------------------------------------------------------------------------------------------------------------------------------------------------------------------------------|------------------------------------------------------------------------------------------------------------------------------------------------------------------------------------------------------------------------------------------------------------------------------------------------------------------------------|--------------|---------------------------------------------------------------|
| <b>평생회비 50만원</b> | 법수스님 (81선학) 53<br>선주선 (73불교)<br>신석우 (09사과대)                                                                    | 김숙희 (67물리)<br>김영석 (87법학)<br>김영희 (71식품공학)<br>김태용 (91행대원)<br>박대은 (97사과대) 20<br>박명준 (71건축공학)<br>박주근 (73경찰행정)<br>박형배 (85전자계산)<br>배보영 (97불대원)<br>백용은 (86수학교육)<br>안수일 (80미술)<br>유종희 (61농림경제)<br>이권학 (86인도철학)<br>이용은 (80행정)<br>이재형 (91행정)<br>이춘선 (78체육교육)<br>정경훈 (82경영)<br>정호경 (95불대원)<br>최우수 (77경제)<br>한광태 (83경영) | 김기원 (59법학)<br>김기환 (68위생공학)<br>김대선 (85선학)<br>김대철 (69정치외교)<br>김대홍 (94불대원)<br>김동익 (61식품공학)<br>김문자 (60수학)<br>김상규 (82경대원)<br>김상규 (98국정원)<br>김상일 (83농학)<br>김선덕 (88농학)<br>김성민 (89경영)<br>김성일 (86건축공학)<br>김성호 (96문예대)<br>김세재 (64경제)<br>김시현 (60미술)<br>김인영 (71경영)<br>김영환 (67위생공학) 6<br>김용성 (93교육)<br>김용운 (95문예대)<br>김원식 (81행정)<br>김원철 (68영어영문)<br>김원희 (89행대원)<br>김재현 (85국민윤리)<br>김재호 (08사과대)<br>김준근 (89화학)<br>김준배 (49전문부문)<br>김진태 (70무역)<br>김철수 (73경제)<br>김철완 (88법학)<br>김한성 (85한의)<br>김현신 (91교대원)<br>김형식 (00경대원)<br>김흥기 (95경찰행정)<br>김희자 (89미술)<br>나승규 (08대학원)<br>노기철 (89경대원)<br>대홍사주지스님<br>도안사주지스님<br>동명사주지스님<br>류경선 (96경대원)<br>류우열 (74회계) | 류혜경 (96경찰행정)<br>무학사주지스님<br>문양일 (61국어국문)<br>민갑룡 (대학원)<br>박기룡 (01불대원)<br>박두호 (63경찰행정)<br>박상래 (80화학공학)<br>박성만 (75전자공학)<br>박성진 (65법학)<br>박영화 (80승가)<br>박정식 (67정치외교)<br>박정민 (79불교미술)<br>박태강 (64경영)<br>박태원 (65국어국문)<br>박혁구 (69경영)<br>박희익 (63상학)<br>배원 (85농업경제)<br>백봉흠 (57법학)<br>백성범 (80농학)<br>법농스님 (91불대원)<br>변봉현 (67자동제어)<br>변유근 (67법학)<br>변준연 (86토목공학)<br>보광사주지스님<br>보림사주지스님<br>보문사주지스님<br>봉황사주지스님<br>서상록 (78행정)<br>성법스님 (92불대원)<br>손락상 (84행정)<br>손본수 (67상학)<br>손정희 (99연정원)<br>송부용 (78농업경제)<br>송성환 (66경제)<br>수선정사주지스<br>수중사주지스님<br>시방사주지스님<br>신경자 (84행정)<br>신관후 (65경영)<br>신철호 (83화학공학)<br>신혜숙 (81국어국문)<br>심광보 (58물리) | 심복사주지스님<br>심원사주지스님<br>심종구 (68상학)<br>안경수 (59상학)<br>안문기 (84법학)<br>양정기 (65통계)<br>엄종호 (56법학)<br>영탑사주지스님<br>오양근 (81법학) 10<br>오진모 (57법학)<br>오희영 (75조경)<br>옥건호 (67식품공학)<br>용문사주지스님<br>우근식 (98경대원)<br>운홍사주지스님<br>원각사주지스님<br>월성사주지스님<br>위경용 (68식품공학)<br>유광진 (73전기공학)<br>유동식 (73식품공학)<br>유세희 (86농업생물)<br>유영욱 (70국어국문)<br>유윤중 (대학원)<br>윤병식 (56영어영문)<br>윤완수 (88불교)<br>은세근 (57사학)<br>이경자 (98토목공학)<br>이경자 (94불대원)<br>이계연 (83가정교육)<br>이규석 (84회계)<br>이규현 (85대학원)<br>이기우 (89경제)<br>이문수 (61생물)<br>이병직 (71통계)<br>이부성 (63경제)<br>이상삼 (80건축공학)<br>이상윤 (71건축공학)<br>이상협 (84국어국문)<br>이여진 (69화학)<br>이연석 (66경찰행정)<br>이영호 (61정치) | 이재명 (82건축공학)<br>이정분 (00불대원)<br>이종대 (77무역)<br>이종연 (85농업경제)<br>이좌범 (64사학)<br>이창규 (74전기공학)<br>이창근 (72체육교육)<br>이창범 (82법학)<br>이창진 (02불교) 10<br>이춘아 (77가정교육)<br>이택수 (66경제)<br>이학설 (56법학)<br>이홍근 (78경대원) 6<br>이희갑 (83불교미술)<br>임운기 (60농학)<br>임재천 (74영어영문)<br>장광수 (80경영)<br>장윤스님 (92불대원)<br>전전홍 (61경영)<br>전철수 (74연극영화)<br>정갑동 (69영어영문)<br>정강대 (81법학)<br>정규수 (81건축공학)<br>정석원 (63상학)<br>정익섭 (70농업경제)<br>정학주 (64법학)<br>조봉원 (73통계)<br>조선우 (81행대원)<br>조은호 (78가정교육)<br>조중근 (61상학)<br>조철제 (81한문)<br>죽림정사주지스<br>중앙사주지스님<br>지영선 (80화학)<br>진만스님 (77승가)<br>진중렬 (77조경)<br>차대식 (97사과대)<br>차대영 (89경찰행정)<br>차용식 (70무역)<br>청련암주지스님<br>최경욱 (84일어일문)<br>최삼범 (90물리) | 최선근 (82식품공학)<br>최성섭 (65식품공학)<br>최수경 (95대학원)<br>최진규 (00대학원)<br>최향화 (82영어영문)<br>표종섭 (85고미술사학)<br>한만선 (70경찰행정)<br>한진수 (86미술) 10<br>허균영 (14경전원)<br>현각스님 (김효중) (94선학)<br>현승우 (65경제)<br>현우스님 (00선학)<br>현중스님 6<br>호영송 (62연극영화)<br>홍근영 (64행정)<br>홍승우 (86불교)<br>홍승하 (70농학)<br>화장사주지스님<br>황선관 (66경찰행정)<br>황선표 (88건축공학)<br>황윤철 (95정보산업) |              |                                                               |
| <b>지도위원 30만원</b> | 김수창 (65불교)<br>박도근 (61상학)<br>서윤길 (64불교)<br>신재호 (57법학)<br>양규철 (64농학)<br>유영수 (62행정)<br>정대진 (59법학)<br>종상스님 (86행대원) | <b>연회비 3만원</b>                                                                                                                                                                                                                                                                                              | 강경호 (03국어국문)<br>강신제 (73토목공학)<br>강인선 (01경영)<br>강인성 (81건축공학)<br>강중식 (57수학)<br>강진영 (87토목공학)<br>강충구 (81토목공학)<br>경규명 (64경제)<br>고산사주지스님<br>고홍식 (62물리)<br>공진식 (57경제)<br>광덕사주지스님<br>광해스님 (06선학)<br>권순일 (62국어국문)<br>김규원 (81영어영문)<br>김금용 (74국어국문)<br>김기권 (59불교)<br>김기덕 (83행정)                                                                                                                                                                                                                                                                                                                                                             | <b>상임이사 20만원</b>                                                                                                                                                                                                                                                                                                                                                                                                                                                                                                                                                                                                 | 김병기 (80법학)<br>노환숙 (67경영)<br>대원스님 (15불대원)<br>박상래 (78통계)<br>박일근 (69농업경제)<br>안창응 (63식품공학)<br>안태호 (85교육)<br>양병렬 (03법학)<br>이명선 (67대학원)<br>이창수 (80회계)<br>최응렬 (79경찰행정)<br>한수한 (10APP과정)<br>허봉주 (87경대원)<br>홍흥기 (76영어영문)                                                                                                                                                                                                                                                                                                                                                                                      | <b>발전기금</b>                                                                                                                                                                                                                                                                                                                                                                                                                                                                                                                                                                                                                             | 동명사 월 2만원<br>누계 : 156만원                                                                                                                                                                                                                                                                                                      | <b>동국장학회</b> | 이진혁 (75화학) 월 5만원<br>누계 : 415만<br>이성훈 (97정보) 월 2만원<br>누계 : 54만 |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생명보험



# KB생명보험 「KB,[약:속]종신보험」 2020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 KB, [약:속] 종신보험(무)이

2020 국가서비스대상 ‘금융/종신보험’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험료 완납과 동시에 해지환급률이 100%가 되는 진화된 종신보험으로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국민의 평생 행복파트너 KB생명보험의 미래를 기대해 주세요.

### 2020 국가서비스대상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산업자원통상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앙일보에서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을 정량화하여 부문별 한 해 동안 가장 사랑받은 기업의 서비스를 선정합니다.

경향신문

2020.9.18(금)

## KB생명보험, 고객중심 경영 돋보여 시장주도형 상품으로 ‘2020 국가서비스 대상’ 수상



작년 말 금융감독원은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며 판매되는 경향이 있던 무[저]해지보험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후, 지난 7월 28일 “보험업 감독규정” 입법 예고를 통해 “무[저]해지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며 불완전 판매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상품구조 개선”을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현재 판매 중인 무[저]해지보험 중 납입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보험상품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 이내로 설계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그 동안 이러한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였던 보험사들에겐 큰 부담이다. 그런데, 생명보험 업계에선 작은 규모라 할 수 있는 KB생명보험은 이러한 상품 개정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동시에 올 2월 출시했던 [약:속]종신보험(무)을 통해 ‘2020 국가 서비스 대상’을 최근 수상하여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KB생명보험의 [약:속]종신보험(무)은 보험료 납입을 끝내고도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가 되지 않았던 기존의 보험상품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해지환급금이 연도별 납입보험료에 비례하여 정해져 보험 가입 시점에, 언제, 얼마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지를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다.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은 경과기간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10년납의 경우, 2년에 20%, 3년에 30%, 5년에 50%, 10년에 100%와 같은 식이다.

이러한 결실은 2018년 취임한 허정수 사장의 고객 중심 경영에 기반한 고객 서비스 차별화에 기반한다. 허정수 사장은 KB금융그룹에서 KB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 KB손해보험사 모두를 거친 재무전문가다. 손해보험사와 증권사를 인수했을 때 인수 뒤 통합(PMI)작업을 담당했다. KB생명보험의 사장으로 취임 이후 장기적인 청사진에 따라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이다. 그는 보험의 본질은 “건강과 소득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미래를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고객과의 약속”이라고 정의한다.

고객과의 약속을 기반으로 고객과 같이 성장하는 KB생명보험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